MAY 9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ONTARIO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주한 자유중국대사와 면담요청

납치범6명은 모두 중공인

평양상공3회 선회한후 서울로 기수돌려

(서울5일=외신종합) 승무원을 포함, 105명을 태우고 춘천에 도착한 피납중공여객기 「트라이멘트」의 납치범은 모두 6명의 중공인으로 이들은 착륙후 서울의 대만대사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망명을 목적으로 비행기를 납치한 것으로 보인다.

중공항공기 납치가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국방부는 중공제트여객기가 북한상공을 거쳐 비무장지대 상공을 넘어 남한상공으로 들어온 이후 초계비행중이던 한국전투기들에 의해 진로를 차단당했으며 피납기의 조종사가 "날개를 좌우로 흔들어 착륙의사를 표시"한뒤 춘천부근의 군기지에 무사히 착륙했다고 말했다.

9시간동안 삼엄한 경비속에 기내에 머물렀던 승객들은 건강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정부는 이미 외교사절을 현지에 급파했다.

한편 조종실에서 총격부상상태로 발견된 2명의 승무원은 조종사 왕페이푸씨와 무선사 왕영창씨로 밝혀졌다.

진상조사에서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는 화교 마첸칭(51)씨에 의하면 피납여객기의 승객은 대부분 선양과 인근지역의 공장및 백화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라고 밝혔다.

승객중 한 백화점종업원은 최근 개정된 세법에 관한 교육을 받기 위해 상해로 향하던 중이라고 말했다.

피납 중공여객기를 조사하기 위해 30명으로 구성된 항공기 전문가들이 6일아침 춘천에 급히 파송됐다.

한국교통부와 대한항공의 항공기정비전문가들은 조종실의 녹음시설과 비행기록장치를 점검한다.

전문가들은 영국제 트라이멘트 제트기가 춘천부근의 군기지에 비상착륙할때 부서진 기체의 바퀴와 부속을 고칠 예정이다.

공로명외무차관은 6일 오전 주한일본대사관에서 고또·도시오공사와 순야나지·순지공사를 각각 면담하고 탑승객중 3명의 일본인 송환에 대해 협의했다.

밝혀진 일본인 승객은 2명의 국민학교여선생과 관광대행업자 1명이다. 이들은 이날밤 일본공관 직원들의 호송에 의해 김포국제공항을 거쳐 JAL기편으로 귀국했다.

슈유치(Hsueh Yu-Chi) 자유중국대사는 6일오후 외무부 공로명차관의 소환을 받고 6명의 중공 항공기 납치범들이 대만에 정치적망명요청을 한것에 대한 의견을 협의했다.

회의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2면에 계속)

메트로주택 평균가 $85,000

가장 높은 지역은 로스데일

4월중 메트로·토론토의 주택판매량은 3월보다는 약간 떨어졌으나 토론토부동산위원회(Toronto Real Estate Board)가 생긴 이후 5번째로 좋은 월별매상을 기록했다.

TREB는 4월중 총2,990채의 주택을 팔았으며, 이 숫자는 3월보다 246채가 적은 숫자이다.

4월중 팔린 집값의 중심점인 중위가격(Median Price)은 8만5천달러 내지 9만달러였다.

톰·보슬리 TREB위원장은 부동산업계의 전망이 밝다고 전망했다.

3월말 현재 TREB의 MLS리스트에 오른 집은 총19,700채로 이 숫자는 총20,800채가 리스트에 오른 지난 6월이후 최대이며 주택구입 희망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고, 가격이 뛰는 것을 억제해주는 이점이 있다.

지역별 평균매매가격은 돈·밸리동쪽이 88,580달러, 더퍼린·스트릿 서쪽에서 돈·밸리북쪽으로 리치몬드힐까지의 중심지는 134,893달러이었다.

가장 값이 센 지역은 로즈데일로 평균가격 270,679달러였고, 가장 평균가격이 낮은 지역은 더퍼린, 세인트·클레어·웨스트, 에글링턴·웨스트, 험버강의 66,621달러였다.

주택매입 지원금 바닥나

신청자 너무 많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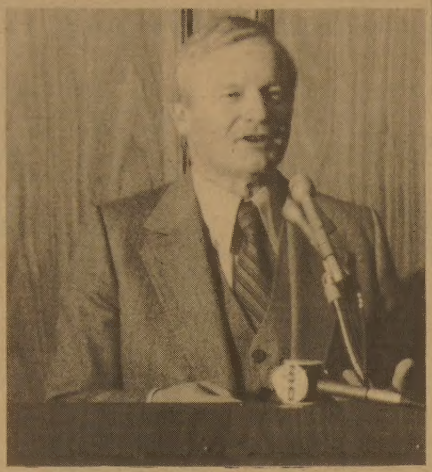
연방정부는 5월말까지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살경우 3천달러를 무상지급하기로 한 계획을 자금이 바닥이 났다는 이유로 4일부로 중단했다.

이날 연방주택성의 로메오·르블랑장관은 캐나다모기지 주택공사가 신청자들에게 정부의 무상지급에 기대지 않도록 통고했다고 밝히고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지원자가 몰려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천달러 지원은 원래 금년 4월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었으나 막·라롱 연방재무상은 지난달 새 예산안에서 3천만달러가량을 증액, 5월말까지 연기시킨다고 말했었다.

소수민족신문발행인과 조찬회

데이비스 『온』 주수상, 6일 로열·욕호텔



◆6일 아침 소수민족언론인과의 조찬회에서 연설하는 데이비스수상.

윌리엄·데이비스수상은 6일 아침 로열·욕 호텔에서 있은 소수민족 언론인들과의 조찬회에서 "프랭크·밀러재무상, 또는 그밑의 관리들이 예산안을 의도적으로 누설한 것이 아닌데도 꼭 그를 사임시켜야 하는가?"고 반문, 온타리오주예산안의 누설책임을 그에게 묻지 않으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데이비스수상은 "예산안 상정책임자인 밀러재무장관을 해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밀러장관은 10일 금년도 주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내용이 토론토의 글로브·앤드·메일지 5일자에 게재됨으로서 야당은 그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예산안을 찍는 인쇄소 쓰레기통에서 예산안의 일부페이지를 발견했다.

예산안이 사전 공개되면 담당 재무장관은 사임하는 것이 통례이다.

지난달 19일 연방정부 예산안이 TV에 누설됐으나 트루도수상은 담당 라롱재무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때의 누설은 예산안을 기자들에게 사전설명할때 TV카메라맨이 망원렌즈를 써서 내용일부를 촬영한 때문이었다.

데이비스 수상은 이번 조찬회에서 "나의 정치철학은 나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실망했고 어떤 사람들은 환영했지만 나는 온타리오주 수상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시 다짐했다. 데이비스 수상은 수일전 연방보수당 당수직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천명, 수개월간의 억측에 종지부를 찍었다.

보수당원이긴 하지만 상당히 진보적인 정치이념을 가진 것으로 정평있는 데이비스수상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정계옵저버들은 "캐나다 전체로 보아서는 손실이지만 온타리오주로 보아서는 다행이다."라고 평했다.

〈오늘의 시세〉

CN$1.00 = 627.00원
CN$1.00 = US81.55센트
금(런던) = $531.86
은(토론토) = $15.34/oz.

◆4일밤 열린 미스·코리아대회 입상자및 집행위원간담회 광경. 좌로부터 윤방현 집행위원장과 박선희양, 조경희양, 강영주양, 오미숙양, 집행위원 김현옥양(TV 한국 아나) 및 이은경양(관계기사 2면)

은하 보석
란제화장품 대리점
ROLEX
오메가시계
교포을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현재소지업체
45% ~ 50% OFF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강 찬 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현영일
카나다공인회계사무소
☎444-9341
Yong I. Hyun 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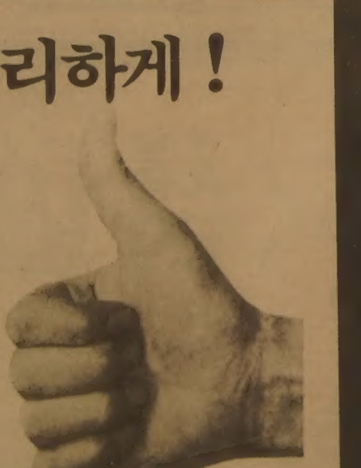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R 622 5147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전 화 :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e)
* 주택·대지·상가·사업체·투자처·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채 준 성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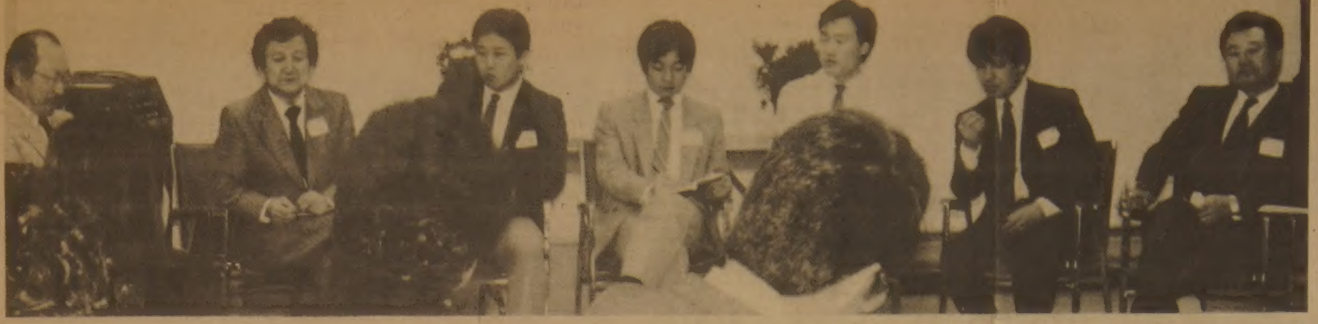
노력과 땀으로 이뤄논 결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증식시킬수 있을까?
● 정기예금및 적금 ● 대출업무
카네이션 정기적금 월부금표
정기적금의 월부금과 지급액 단위 : CAN$

기 간	계약액	월부금	납입총액	지급보충금	특별금리	지급총액
6개월	500	81.44	488.64	11.36	6.07	506.07
	1,000	162.88	977.28	22.72	12.14	1,012.14
1 년	500	39.68	476.16	23.84	10.99	510.99
	1,000	79.36	952.32	47.68	21.98	1,021.98
1년반	500	25.84	465.12	34.88	14.84	514.84
	1,000	51.68	930.24	69.76	29.68	1,029.68
2 년	500	18.92	454.08	45.92	17.93	517.93
	1,000	37.84	908.16	91.84	35.86	1,035.86

● 500불 이상은 500불을 기준으로한 배수
높은이자율 13.97%
카네이션 적금은 "푼돈으로 목돈 마련"에 편리하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카나다 韓一銀行 토론토지점
HANIL BANK CANADA
● Toronto Main Branch P.O.Box 262 6960 1 Canadian Place Toronto M5X 1C9 (416) 865-0456
● Vancouver Head Office 2674 Four Bental Centre 1055 Dunsmuir St. Vancouver. (604) 681-2266

"어머니날"을 위한
화초·꽃 도매
✻주문배달 접수중✻
— 친절봉사
— 저렴한 가격
☎ 465-8167
Mr. 곽 Mr. 김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5일 열린 제1회 북미한인대학생회의 취지설명리셉션 참석자들. 왼쪽부터 강공선씨, 유재신교수, 조성용씨, 윤주석씨, 정태교씨, 김승배씨, 박영철부총영사

적극적인 교민 호응받아

8월 토론토에서 열릴 북미한인대학생회의

한인대학생회(KUSA)와 대학생동창회(KUSA Alumni) 공동주최로 오는 8월 토론토에서 열릴 예정인 제1회 북미한인대학생회의(Korean-North American Student Conference)의 취지, 프로그램, 예산등을 설명하기 위한 리셉션이 5일 저녁8시부터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교민들의 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해 마련된 이날 모임에는 박영철 토론토 부총영사, 박희민 목사, 김재광 토론토영락교회목사, 강공선 장학재단이사장, 윤여화 한국학과 후원재단이사장, 이영현 무역협회회장, 유재신 토론토대학교수, 김태진 한인회이사장등 한인사회 인사 30여명이 참석, 대학생회의를 "물심양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울것을 확약했다.

이날 모임에는 윤주석 대학생동창회회장의 취지설명, 조성용총무의 프로그램 소개, 김승배 재무의 소요예산설명, 정태교대학생회장의 청소년 예술제에 대해 각각 설명이 있었으며 이어 유교수, 박목사, 박부총영사순으로 격려의 말이 있었다.

윤대회장은 취지설명에서 "토론토 최초가 될 북미한인대학생회의는 8월22일부터 27일까지 토론토대학교 스카보로 캠퍼스에서 열린다고 밝히면서 4번의 강의·토론과 한번의 공개강의로 구성된 이번대회 프로그램은 한국의 언어·문화·철학·종교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학생회의의 총비용을 약 3만달러로 책정했으며 이중 2천달러 정도는 연방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주최측은 낙관하고 있다.

총예산중 약절반은 참가자에게 등록비로 받는 80달러에서 충당되고, 나머지절반중 일부는 오는 28일 거행될 청소년 예술제에서 염출되며, 또 일부는 한인사회의 기부금에서 보충된다.

토론토교역자협의회는 이미 1,000달러를 약정했고 강장학재단이사장은 6월에 있을 40명으로 구성된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취지를 설명하고 기부금을 갹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이기훈 토론토한인회 부회장은 이번대회를 돕는 방법의 일환으로 대학생회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한국학과 후원재단 이사장은 이날 좌담회에서 미국에서는 각도시간의 대학생회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캐나다에는 처음인 뜻깊고, 교민으로서는 자랑스러운 이행사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면에서 계속)

승객은 서울 워커힐호텔로 이송

허문도 문공부차관은 한국정부는 항공기와 승무원에 대해서는 공중납치와 테러행위를 방지하는 국제관례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남자5명과 여자1명으로 구성된 납치범 명단을 발표했다.

주범 조창젠(36, Cho, Chang Jen) : 주정부공급관리

왕옌다(29, Wang, Yen Da) : 환경담당관리

장홍천(23, Chiang, Hung Chun) : 체육학교경비원

우얀회(35, Wu, Yuan Fei) : 주정부해외무역관리

안첸예(24, An, Chien Wei) : 체육학교경비원

과동평(28, Kao, Tung Ping) : 주범 조의 애인

한소식통은 납치범들은 피스톨을 사용했으며 상해를 이륙한지 1시간30분쯤 조종석문을 향해 발사한후 열고 들어가 대만으로 기수를 돌릴 것을 명령했으나 조종사가 북한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 비행기는 평양상공에 진입하여 3회 선회했으나 납치범들이 이를 알고 서울로 돌리라고 강요, 비무장지대를 넘어 중부전선 00기지에 강제착륙했다고 밝혔다.

이들 납치범들은 비행기지 착륙즉시 한국관리들에게 서울주재 자유중국대사관의 고위 대표자를 만나기전에는 승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대만으로 송환될 것을 주장했다.

탑승객의 신원을 보면 12명의 정부공무원, 2명의 은행관계자, 48명의 일반노동자, 2명의 의사및 5명의 설계사등이다.

자유중국대사관의 관리는 5일 오후7시 2명의 승객과 면담하였고 2시간후 부상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승객은 춘천시의 관광호텔로 송환되었다.

한편 그곳에서 일박한 승객들은 6일오전 서울로 이동, 세라톤워커힐호텔에 인도되었다.

(도오꾜 6일=연합) 일본정부는 중공기 피납사건에서 한국·중공간 중재역할을 할 용의가 없다고 6일 고도다·마사하루 관방장관이 밝혔다.

고도다장관은 이번사건은 한국과 중공이 직접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일본은 다만 중공측의 요청에 따라 중공정부의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했으며, 사태의 추이를 관망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12.5%로 하락

개인융자최저이자율

로열·뱅크는 개인융자의 최저이자율을 12.5%로 내린다고 발표, 지난 토론토·도미니언(TD)뱅크가 밝힌 이자율과 같은 수준을 이루었다.

로열, TD 이외은행의 개인소비자융자 이자율은 13%선이고 1년만기 모기지 이자율은 11%정도이다.

5일 캐나다중앙은행은 금리를 9.37%에서 9.33%로 내린다고 발표, 캐나다의 금리는 78년 10월 이후 4번째로 낮은 수준이 됐다.

78년 10월의 중앙금리는 9%였다.

한편 캐나다달러화의 가격은 4일 미화1달러당 81.69센트에서 81.55센트로 떨어졌다.

최분남여사 사망

위암과의 투병끝에

토론토교포 김태영씨(가게경영)의 어머니 최분남(67, 클라라)여사가 위암과의 투병끝에 지난 5일밤 닥터스호스피탈에서 세상을 떠났다.

지난 75년 아들 태영씨와 딸 김천순씨(사위 김학성)와 함께 토론토에 이민, 집안살림을 돌보고 손주들을 보살피는 한편, 신앙생활에 열중해 왔다.

4.5개월전 위암증세를 발견, 입원 치료중이었다.

유해안치소는 워싱턴장의사(Queen St.E. × Broadview)로 교회합동연도회는 8일(일) 하오8시 동장의사에서 있었고, 장례식은 9일(월) 상오11시 한인천주교회(80 Power St.)인 쎄인·폴성당서 거행된다.

WBC 라이트級 라미레스 챔피언에

프에르토리코의 에드윈·로자리오는 1일 프에르토리코 산후안에서 열린 WBC 라이트급 결정전 12회전경기에서 멕시코의 호세·라미레스에 심판전원 일치판정승을 거두고 새로운 챔피언이 되었다.

WBC라이트급이 공석이 되자 랭킹1위인 로자리오와 2위인 라미레스간에 결정전으로 열린 이날경기에서 로자리오는 초반우세를 잘지켜 판정승을 거두었다.

세계가 이상기온

『엘·니노』 현상 때문

(워싱턴=UPI) 지난 겨울 캘리포니에 몰아친 폭풍우와 호주를 뒤덮은 가뭄, 에콰도르를 엄습한 기록적인 강우량등 세계적인 이상기온은 모두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바람과 기후현상의 급격한 변화때문이었다고 과학자들이 결론지었다.

이상기온을 연구하러 워싱턴에 모인 과학자들은 지난 겨울의 이상기온으로 전세계에서 8배명이 숨지고 약70억달러의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는 세계적으로 정상기후가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기상대 산하 기후분석연구소의 유진·래스머슨박사와 국립대양및 대기국의 조앤·흑바사등 기후학자들은 이상기온의 주요원인이 매년 겨울에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 「엘·니노」로 인한 기온변화라고 결론지었다.

스페인어로 아기예수를 뜻하는 엘니노(El Nino)는 보통 8년만에 크리스머스를 전후해 따뜻한 날씨를 몰고 태평양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면서 추운 날씨를 밀어내고 있는데 작년에는 추운 기온을 남쪽으로 밀어내 캘리포니연안에 이상기온이 발생했다.

또 보통 태평양중앙에 모여 계속 서쪽으로 부는 건조한 태평양무역풍의 방향도 변화되어 에콰도르근방을 지나지 않아 에콰도르에는 폭우가 내리기도 했다.

Y성인영어토론반

다음 모임 14일

한인 Y의 성인영어토론반 상록회(Evergreen)의 다음모임이 오는 5월14일(토)하오 3시반부터 5시까지 Y회관(칼리지 × 도버코트)에서 열린다.

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록회는 2주일에 한번씩 모여 5분연설, 주제별 토의, 영어식 회의진행, 회보 「Evergreen」 발간을 통해 각회원의 영어실력을 늘리며 캐나다사회에의 적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스잔·레제양이 지도하고 있는 동 클럽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회비는 무료이다.

클럽모임동안 베이비·시터가 제공된다.

연락처는 전화 : 536-1166(YMCA 김창열총무)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黃金의 사나이

<228>

헤로인 ㉓

눈깜짝할새 一擊… 쓰러진 김형사는

노인은 쑥쓰럽다는듯 웃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김형사의 얼굴에서는 이미 웃음이 사라져있었다. 그는 어느새 노회한 사나이로 돌변해있었다.

『별것 아닙니다. 골동품 하나하고 고서 몇권 하고 들어있읍니다.』

노인은 여전히 쑥쓰러워하는 웃음을 얼굴에 담고있었다.

김형사는 경계하는 눈초리로 상대방의 움직임을 응시했다. 몸에밴 경계의식이 노골적으로 나타나있었다. 노인이라 별것은 아닐것이다. 그러나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

『좀 봅시다. 별것 아니라도 좋으니까 좀 봅시다.』

그가 버티고있자 노인은 마침내 등에서 배낭을 내렸다. 그것을 눈이 쌓인 길 위에 놓고 줄을 풀었다.

『자, 보십시요.』

노인은 배낭을 헤쳐보였다.

김형사는 경계를 풀지 않으면서 배낭속을 들여다보았다.

노인이 말한대로 고서가 눈에 들어왔다.

노인이 배낭을 닫으려는 것을 그는 막았다.

『그 책들을 들어보십시오.』

노인은 책들을 들어냈다. 그밑에 무엇인가 신문지에 싼 뭉음이 있었다. 김형사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배낭속에 손을 집어넣고 그것을 만져보았다. 골동품이라면 딱딱한 감촉이 느껴질텐데 그렇지가않고 물렁물렁했다.

『이게 골동품인가요?』

『아닙니다.』

노인의 눈이 재빨리 주위를 살폈다. 주위에는 사람이 없었다. 멀리서 택시가 한대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朴男 그림

『아니라고요? 아까는 골동품이라고 했지 않아요?』

김형사의 물음은 거기서 더이상 나갈수가 없었다. 노인의 농구화 발이 눈깜짝할 사이에 그의 턱을 걷어차는 바람에 그는 뒤로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상대는 대항할틈도 주지 않았다. 두번째의 발길이 이번에는 그의 목을 걷어찼다. 김형사는 일찌기 그렇게 강한 타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온몸이 찢겨나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면서 그는 상대가 무시무시한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그의 기억에 마지막이었다. 가슴에 다시 일격을 받는것과 동시에 그는 정신을 잃었다.

노인은 길 가운데 그대로 서있었다. 이윽고 택시가 달려왔다. 달려오는게 아니라 기어온다는 표현이 옳았다.

택시가 멎었다. 차창문을 열고 운전사가 밖을 내다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빨리 데려가야 합니다!』

노인은 허둥거리며 말했다. 택시뒷좌석에는 임신한 부인이 한사람 앉아있었다. 운전사가 딱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양해를 구하자 부인은 차에서 내렸다.

『다 왔는데서 걸어가죠 뭐.』

『감사합니다.』

노인은 놀라운 힘으로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택시에 실었다.

미인대회 미녀들 간담회

"생애최대의 경험했다"

「미」 강양은 상금을 모두희사

지난 4일밤 본사에서 열린 8회 캐나다미스코리아대회 입상자및 집행위원회 간담회에서 미스코리아 미 강영주양(19)은 부상으로 받은 현금 3백달러를 다음대회 기금으로 회사했다.

이날 참석한 6명의 미녀들은 이번대회를 통해 평생 얻지 못할 좋은 경험을 했다는점, 앞으로 후보미녀들과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주최측과도 계속 연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등을 피력했다.

집행위원 9명이 참석한 이자리에서 김명규대회장은 윤방현집행위원장에게 미인대회 협조에 대한 감사패를 증정했다.

캐라반운영위원장인 이대환 집행위원은 오는 6월 토론토에서 열리는 캐라반대회 미스캐라반 선발대회에 「선」 이은경양을 한인대표로 출전시킨다고 밝혔다.

이양은 10일간의 캐라반기간중 한민족을 나타내는 「서울관」에서 안내등을 담당한다.

다음대회기금을 회사한 강양은 "화장품을 사든지, 용돈으로 쓰라"는 주위의 권고에 "미인대회에 나간 경험과 무슨 상이라도 받았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굳이 사양했다.

「미」 강양은 사진협회가 뽑은 포토제닉상, 후보들이 뽑은 우정상도 탄 유일한 3관왕이었다.

이날 나온 미녀들은 부상을 전달 받은후 대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감을 말했다.

-연습시간이 부족했고 후보끼리 사귈 날짜가 짧았다.

-일부후보가 야회복심사에 웨딩드레스차림으로 등장했고 화장이나 머리손질이 어색, 스스로 감점을 받게끔 행동했다.

-대회 참가후 표정, 동작등이 전보다 세련됐음을 느낀다. 20여년 생애중 가장 큰 경험을 했다.

-대회에 참가한 것을 잘한 일이라고 느끼며, 좋은 친구들을 사귈 기회를 얻었다. 일생동안 아름다운 기념으로 추억될 것이다.

-대회직후 심사위원들, 입원들의 "수고했다"는 위로의 말이 아쉬웠다.

-패션모델의 동작, 표정지도뿐 아니라, 직업미용사의 화장, 머리손질 강의도 연습과정에 있기를 희망한다.

-출전에 대비해 미리미리 준비 안한 것이 후회스럽다.

-주최측은 앞으로도 계속 유대를 가져주기 바란다.

이자리에서 이광민 심사위원장은 미인들이 알아야할 화장·표정·동작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개인별로 장단점을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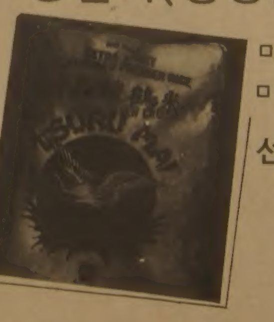
이위원장과 집행위원들은 이번 출전미녀들이 다시 다음대회에 나오면 크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토한국일보사가 최초로 주최한 이번 미인대회의 손익계산은 수입·지출이 각각 2만4천달러(본보광고료 제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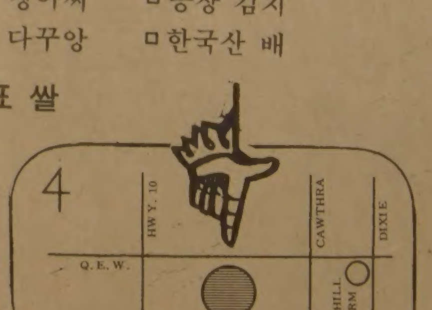
고국상품 대량입하

■고급 숙녀용 샌달(여름용)
■카셑테입
히트곡 김연자
배 호
나훈아
패티김 및
성가 다량 입하.
■방석카버, 어린이용
각양각색의 한복
■야외용 돗자리

*주문배달(토론토 전역 배달)
*일본산 노랑태 햇조기(비늘깐것)
◇일본산 굴비 ◇오뎅 ◇물오징어
*통갈비(상등품) $1.49(LB)



ㅁ고추 장아찌 ㅁ농장 김치
ㅁ농장 다꾸앙 ㅁ한국산 배
선학표 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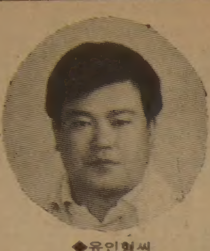


저렴한 가격,
최고의 품질
한밭식품
466 SOUTH SERVICE RD. -미시사가 한글학교 옆-
274-5401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유인형수필선〉

호박검열 ㊤


◆유인형씨

「야단났읍니다.」

「왜?」

「호박검열관님이 군단에서 출발했답니다.」

「호박 열었소?」

「씨앗도 안뿌렸읍니다.」

「영농자금은 받았소?」

「조금 받아서 몽땅 마신 것같습니다.」

「언놈이 씨앗값까지 홀라당했어? 어!」

「바로 제 앞에 계시는 분입니다.」

「아이쿠! 양심불량을 내가 했다고?」

「그래서 검열 나오는거 아닙니까.」

한시간쯤 지나면 광치령을 넘어 들어닥칠 모양이다. 농대를 졸업한 전문직 장교들이 호박검열을 전문적으로 할 판이다. 하긴 유휴지를 그냥 썩혀가며 방치해 버리는 것보다는 호박도 심고 무우, 배추도 가꾸고, 또 돼지나 토끼도 기르도록 하명이 되어 있었다. 병사들의 급식을 향상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정서순환과 함께 유효적절하게 교육훈련의 공백을 메우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목적이야 좋지만 그 영농자금이 말단중대에까지 내려오는 동안 이리저리 시달리다가 결국 막걸리 몇되와 낚지 한접시로 끝나 버렸던 것이다.

「곧 이어 감찰검열도 뒤따라 온답니다.」

「접좀 주지마. 당신은 그래 막걸리 안 마셨소?」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요럴 때만 예수 믿는구만!」

집안싸움이 날 지경이다. 사실 부대에서 나오는 잠빵이라는게 아까워 돼지도 이십여마리 키웠던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생긴 돼지인지 자랄 줄을 몰랐다. 육개월이 지나고; 일년이 지나도 항상 그대로 새끼돼지였는데 그래도 숫자만은 정확하게 맞았다.

그러던 어느날, 취사반장이 누구에게 얻어터졌는지 억울한 호소를 하러 왔다.

「중대장님, 집으로 가겠읍더.」

「네맘대로 가? 그래 탈영하겠다는 동기가 뭐야?」

「돼지새끼때문에 사람 못살겠읍더!」

「돼지같은 소릴!」

「마, 말도 마이소. 인사계님이 매일같이 돼지를 검열하고 좀 크면 몰고 갑니더. 우짭니꺼? 언놈은 돼지 몰고가고, 또 언놈은 새끼돼지를 사다놓아야 하니 죽을 지경입니더. 어제는 국푸는 주걱으로 돼지좀 때려주다가 들켜서 조인트가 깨이고, 아귀창이 돌아가고, 이것좀 보이소!」

취사반장이 나발을 부는 통에 돼지도둑을 알게 되었다.

「압록강물을 수통에 넣어 왔다는 제주도군번이 그짓을 했다니!」

화랑무공훈장을 몇개씩 달고 돼지도둑으로 둔갑하는 분위기였다. 화가 나서 인사계를 불러오라고 호통을 쳤지만, 아버지뻘 되는 나이의 노병을 엎드려 뻗쳐 시키긴 뭔가 안되었다.

「사랑봉 가져와!」

가끔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하러 가는 인사계를 패주기가 또 괴로운 것이다. 공병대에선 곡괭이 자루를 「사랑봉」이라고 불렀다.

「좋아. 다 그만두고 뺑끼통 갖고 날 따라와. 뺑끼칠을 해놓으면 되잖아?」

돼지울에 들어가 양쪽 발목을 잡고 흰 뺑끼칠을 하느라고 야단법썩이었다. 돼지가 비명을 지르고, 한쪽에서 페인트칠을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뭘봐?」

「돼지새끼 구경합니다.」

「저게 접도 없이 말대답이야!」

그 부대장에 그 병사들이었다. 킬킬거리며 웃느라고 야단들이 났다.

「서무계는 당장 만국기를 그려서 돼지울마다 달아놔. 난쟁이 돼지사육에 성공한 기념으로!」

또 그럭저럭 뛰어다니다 보면 몇개월이 휙 지나가 버린다. 그러다가 무슨 참모회의 석상에서 사병급식 향상문제가 토의되었다. 탈영병증가의 원인이 배가 고프다는 이유가 들어 있었다.

「매월 두명이상 도망병이 생기면 지휘관을 처벌하겠어!」

으름짱을 놓았지만 신통하게도 철교중대에선 탈영병이 없었던 것이다.

「단장님, 저희부대에 와 보십시오. 매일 한마리씩 돼지를 급식하고 있읍니다. 거기다 토끼고기엔 진력이 나고 있읍니다. 제발 꽁치나 미역국만은 다른 메뉴로 바꿔주십시오. 두부국, 콩나물, 소금국 대신에 저희들은 무우, 배추로 김치탕을 만들어 먹고 있읍니다.」

「김치탕? 그거 어떻게 생긴거야?」

메기입의 단장은 기분이 다소 풀리는 것같았다.

「철교중대장은 나가도 좋아. 나머지 놈들은 잿밥에만 신경을 쓰니 원산폭격 좀 하고 가야겠어!」

사실 메기입의 단장이야말로 사병급식향상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원흉이었다.

교량공사의 세멘트로부터 시작해서 철교중대의 고철은 물론 철근과 휘발유, 중요장비의 부속품 등등이 날쌔게 단장 뱃속으로 저축이 되어갔던 것이다. 또한 밤이 되면 십여대의 성능좋은 작전차량이 설악산으로 달려갔는데, 산판의 도벌꾼을 열심히 지원해주곤 하였다. 그러니까 아무리 도벌꾼을 잡아도 수사기관과 협조된 도벌차량은 앞문으로 들어가서 뒷문으로 달려나왔던 것이다. 〈계속〉

한국과 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 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홍신의 「人間市場」
•한국 華府 人脈을 캔다

▲개·고양이등 애완동물이 여러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되는 경우가 발생,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애완용動物 危險도사린

개·고양이 배설물이 家庭에 疾病옮긴다

광견병 致命的, 고질적인 근육통까지
아이들 회충·임산부기형아 낳을수도

가정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등 애완동물이 사람에게 여러가지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국민중 75%이상이 자기집에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껴안고 쓰다듬는등 일상접촉을 하고 있다.

애완동물의 숫자는 인구증가 비례해 늘고 있는데 이에따라 이들에 의한 발병위험도 점차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옮기는 질병중 광견병을 제외하고는 인명을 해칠 정도의 질병은 없으나, 12세이하의 아동들과 임산부에게는 치명적 위험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강아지 대변에는 회충알이 섞여나오는데, 그 유충은 장난감이나 마당의 흙에 수개월이상 살아있다가 아이들의 손에 묻어서 입으로 들어간다.

이 유충은 설사나 장질환을 일으키며, 허파로 침투하면 폐렴이나 기관지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고양이나 개는 십이지장충이나 버짐, 옴등을 퍼뜨린다.

토끼의 호흡기·입·타액에는 셀모넬라외에 「파스텔라」라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 박테리아는 페니실린을 사용해 치료해야 한다.

고양이 발톱에 할퀴면 「스크레치피버」에 걸려 임파선이 붓고 열이나게 된다.

애완조의 배설물은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앵무병」을 옮긴다.

가장 위험한 병의 하나가 고양이 배설물을 매개로하는 「주혈원충병」으로 건강한 사람은 근육통이나 인플루엔자 증세 정도를 보이나, 임산부에 감염되면 기형아를 낳게 할 수도 있다.

"매년 3천명의 신생아가 이병에 감염되고 있는데, 눈이나 뇌에 손상을 입은 아기들도 있다"고 아 란타에 있는 질병통제소(CDC)의 피터·산츠박사는 말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치명적인 동물매개 질병은 역시 광견병이라 할 수 있다.

보균동물에 물리게 되면 총알모양의 바이러스가 피부를 통해 들어와 신경계통으로 침투, 뇌에까지 도달한다.

광견병바이러스는 30~60일간의 잠복기를 갖고 있으므로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해도 안심하지 말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바이러스가 신경계로 침투해버리면 아무런 치료방법이 없어 죽게된다"고 CDC의 켄·버나드 박사는 경고한다.

6회연속 주사를 놓는 치료에는 5백달러가 드는데, 동물에 물려 광견병주사를 맞는 미국인은 매년 약2만명에 달한다고 버나드박사는 전했다.

사망률은 낮아 79년이래 연간 광견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미국인의 숫자는 10명 미만, 그러나 인도같은 나라에서는 연평균 2만5천명이 광견병으로 숨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시키도록 충고하고 있다.

*동물을 만진후에는 손을 씻을 것.

*어린이들을 애완동물과 함께 자지 못하도록 할 것.

*임산부는 동물음식이나 배설그릇등을 다루지 말고 그릇등을 자주 씻어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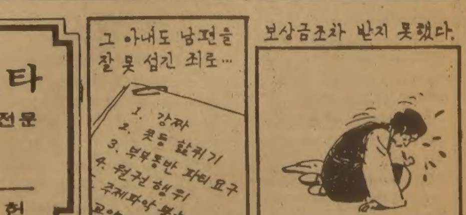
*정원손질을 할때는 반드시 장갑을 낄 것.

*러쿤을 끼우지 말 것.

*애완동물의 새끼가 태어나면 꼭 소독을 시킬것.

*생후6주부터는 예방주사를 맞힐 것.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하르빈한약상사에서

〈알리는 말씀〉

교민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저는 지난 4월 1달간 비지네스 관계로 미국에서 머물다가, 다시 이곳에서 일을 시작함에 알려드립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잠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오며, 앞으로 더욱 열성을 다해서 여러분을 모실 것을 약속하오니, 배전의 지도편달 있으시고 많은 애용 부탁 드리겠읍니다.

서 춘 봉 올림

하르빈한약상사
643 Bloor St. W. (2층)
☎: (B)536-6854

"세계物價…멕시코가 가장싸다"

비싼순위: 서울 7 위·토론토23위…스위스 유니온은행 조사

세계에서 물가(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는 동경, 가장 싼곳은 남미의 멕시코시티. 한국의 서울은 조사대상 47개도시 중 7번째로 물가고가 심한 것으로 꼽혀졌다. 최근 취리히(스위스)의 유니언 은행은 모두 1백19가지의 상품과 서비스종목에 걸쳐 지역별 물가성향을 조사, 이를 여행업계에 제공함으로써 해외여행객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게 했다. 국제도시에 대한 물가조사는 흔히 있는 일이나 이번조사는 스위스의 명문은행이 집중분석하고 조사내용이 된 아이템이 그 어느때보다도 다양하고 성실해 신뢰도를 더했다.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비싼곳은 동경으로 지적되었다. 사진은 동경시내 시장풍경. 〈도쿄-AP〉

이 은행조사는 본거지인 취리히의 물가지수를 1백으로 봤을때 동경은 1백32, 아부다비 1백19, 오슬로 1백18 포인트순위이고 이스탄불과 멕시코시티가 50포인트선으로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낮은 도시로 나타났다.

특히 멕시코시티는 페소화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에게는 여행천국이 될 전망이다.

물가고 랭킹 수위를 점한 동경은 무엇하나 싼게 없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악명을 떨친 부문이 음식값.

유니언은행이 선정한 39개식품가격은 모두 합쳐 멕시코시티가 1백33달러인데 반해 동경은 5백54달러로 무려 4.2배였다.

이번 조사가 국제여행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는 홍콩의 경우가 말해준다.

외국인들에게 소문난 홍콩의 매력중에는 의류값이 싼것이었다. 그러나 이조사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 구두와 양말을 포함한 정장일습에 최저 2백10달러에서 최고 7백50달러로 비싸다면서 런던이 2백11달러~5백84달러, 마닐라는 최고가 1백35달러여서 오히려 싸다고 했다.

재미있는것은 특별히 여행객들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28개상품과 서비스분야(이발료·세탁값·영화비·책값·필름값·우편료·전화료·교통료 등)를 한데 묶어 전체가격을 대비해 본것이다.

이 결과는 유럽여행이 단연 비용이 많이 들어 오슬로·헬싱키·런던·제네바등의 순위였고 카이로와 멕시코가 가장 저렴했다.

미국을 포함한 북미주는 중간정도로 유럽보다는 여행부담이 가볍게 나타났다.

각도시의 상대적 가격 조사결과 몇가지 품목별로 비교적 값이 싼 지역들을 살펴보자(82년기준)

▲담배 = 동남아의 방콕과 마닐라, 터키의 이스탄불(말보르20갑-50센트)

▲위스키 = 룩셈부르크, 밀라노, 자카르타(한병에 6달러10센트)

▲의류 = 마닐라, 봄베이, 자카르타

▲호텔 숙박비 = 유럽쪽의 리스본, 마드리드(1급호텔료가51~55달러)

▲식사비 = 자카르타, 리스본, 더블린, 마닐라(한끼 10달러선)

▲택시료 = 봄베이, 카이로(3마일에 76센트~1달러12센트)

▲공중교통 = 멕시코, 방콕, 봄베이

▲개솔린값 = 제다(1리터당 6센트)등이었다.

이중 석유값은 대체로 평균 50센트~1달러선이었으나 서울은 1달러43센트로 47개 조사지역중 비싸기로 30위를 기록했다.

(1)동경
(2)아부다비
(3)오슬로
(4)바레인
(5)헬싱키
(6)카라카스
(7)서울
(8)스톡홀름
(9)제네바
(10)시카고
(11)코펜하겐
(12)취리히
(13)뉴욕
(14)제다
(15)몬트리올
(16)보고타
(17)싱가포르
(18)런던
(19)부에노스아이레스
(20)로스엔젤레스
(21)자카르타
(22)시드니
(23)토론토
(24)샌프란시스코
(25)파나마
(26)더블린
(27)파리
(28)뒤셀도르프
(29)비엔나
(30)아테네
(31)홍콩
(32)방콕
(33)브뤼셀
(34)암스테르담
(35)리오데자네이로
(36)요하네스버그
(37)텔아비브
(38)카이로
(39)마드리드
(40)봄베이
(41)밀라노
(42)룩셈부르크
(43)사웅파울루
(44)마닐라
(45)리스본
(46)이스탄불
(47)멕시코시티

◀금주의 행사▶

--1983년5월9일(월)~15일(일)

▲5월9일(월)~13일(금)
캐나다기계류박람회
곳 : CNE 콜리시움 빌딩

▲9일(월) 김혜진올갠연주회
곳 : 에글린턴연합교회(65 Sheldrake Blvd)
주최 : 로열·캐네디언·칼리지·오브·올개니스트

▲12일(목)~15일(일)
토론토영락교회 부흥성회
강사 : 김계용 목사
곳 : 영락교회(126 O'Connor Dr. Tor.)
연락처 : 423-9880

▲12일(목)~15일(일) 교육전시회
퀸·엘리자베스 빌딩(CNE 안)
입장료 : 일반 $4.50 18세이하 $2.50

▲13일(금) 하오7:30
모국연예인 초청쇼
출연 : 이주일, 이은하, 김연자, 이용, 호랑나비
곳 : 토론토대학 콘보케이션홀
(College St × St. George, Kings College Circle)
연락처 : 533-2361

▲12일(목)~15일(일) "은혜의 시간"
강사 : 윤철주목사
주최및 장소 : 빌라델비아장로교회
(7 Gretna Ave.)

▲13일(금) "이민건강문제 워크숍"
곳 : 라이어슨·국민학교
(96 Denison Ave. Tor.)
연락처 : 534-9262
등록비 : $15 (식사 포함)

▲14일(토) 하오1:30 배재동창골프대회
곳 : Cherry Down 골프장
(401 E. × Block Rd.)
회비 : $35

▲14일(토) 하오8시 홍은화 바이얼린연주회
곳 : Malvern Community Recreation Centre
(30 Sewells Rd. Scarborough)

▲14일(토) 하오7:45
등불중창단 자선의 밤
곳 : 중앙한인연합교회(353 Sherbourne St. Tor.)
주최 : 한인양로원건립위원회
연락처 : 766-8849

세계최대 갈매기서식지

토론토항 레슬리스트릿 남쪽돌출구

토론토·하버의 외항동쪽끝과 연결된 레슬리스트릿(Leslie St.)의 남쪽돌출부 지역이 현재 세계 최대규모의 갈매기(gull) 서식처로 부상하고 있다.

8만쌍 이상으로 추정되는 갈매기들이 온타리오 호수에서 서식하는 빙어(Smelt)를 주로 잡아먹고 살고 있다.

이곳은 7월의 산란기까지는 그들의 가장 좋은 보금자리이며 새끼를 친 후 갈매기들은 떼를 지어 대이동을 했다가 내년 이맘때가 되면 또 다시 이곳을 찾아 온다.

오는 6월4일부터는 이곳이 자연애호가들, 소풍객들, 싸이클리스트들에게 본격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일반들이 새떼의 생태를 관찰하고 사진촬영, 피딩(feeding)등을 할 수 있다.

원래 이 지역은 쓰레기 및 버려진 공사판의 흙으로 형성된 매립지였으며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거나 나무 한그루, 꽃 한포기를 심지않은 방치된 불모의 땅이었다.

잊혀진 이 지역이 이제는 변하여 자연애호가나 식물학자들에게 유용한 지역으로 각광을 받게 됐다.

이땅은 우리에게 「자연은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생존한다」는 큰 교훈을 가져다 준다.

◆토론토항구의 동쪽끝과 연결된 레슬리 스트릿 남쪽에 서식하고 있는 갈매기떼들.

〈연재소설〉

혼돈 ⑰

글·이예준 그림·최미정

제2편 착수

할머니방에서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렸다.

"김씨, 전화좀 받으세유."

"어휴, 그놈의 여편네"

김이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 게임은 잠시 중단되었다.

"벌써 일곱시에유. 이제 그만들 일어나세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어서 이짓은 한지만 나는 항상 죄지은 것 같이 마음이 조마조마해유"

할머니가 재떨이를 비우며 말했지만,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아! 왔구나. 새하얀 보자기에 네가 고이고이 싸여 있었구나."

고이 간직해온 처녀의 마지막 옷을 벗기듯 덮어진 카드를 조금씩 조금씩 밑으로 조여내리던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의 마지막 카드는 에이스클로버였다.

"죽일놈의 여편네, 내가 오늘 가게문을 여는가 봐라."

김이 성난 얼굴로 투덜거리며 돌아와앉자 게임은 다시 계속되었다.

벳은 케이 페어가 깔린 김부터 시작되었다. 5불, 10불, 50불, 100불, 영수는 거기에 100불을 더 얹어 200불을 채웠다.

"도대체 무얼들고 그러노?"

김이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콜을 했다.

박은 카드를 덮어 버리고 최와 이가 콜을 했다. 중앙에는 돈이 수북이 쌓여있었다. 마른 침을 넘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꿀꺽꿀꺽 들렸다.

김이 조심스럽게 케이 트리플을 엎어놓았다.

"맞았다. 내 영감이 맞았다."

최는 에이스 투 페어를 깔아놓았다.

이는 여유 만만하게 손에 들고 있던 카드를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있었다. 플라쉬였다. 그러나 그의 플라쉬는 마담이 가장 높은자였다. 영수는 빙긋이 웃으며 카드를 내려놓고 수북이 쌓인 돈을 긁어왔다.

영수는 계속 돈을 따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왠지 불안스럽고 초조했다.

"영수, 너 돈따는 재미에 학교도 못 가겠구나?"

"학교는 그만 두었읍니다"

"언제부터?"

"오늘부터요."

"너 그러니까 돈싸들고 여기 졸업식하러 왔구나."

한참 끗발이 서고 있을때, 김의 농담은 영수의 기분을 잡쳐놓았다. 그의 모든 신경이 기타줄처럼 팽팽히 긴장해서 상대방의 카드를 읽고 진퇴를 결정하던 예리한 판단력이 점점 둔해져갔다. 이내 끗발은 시들어서 화롯불처럼 사그러져 버리고, 순식간에 그의 돈은 얄팍하게 줄어들었다.

"영수야, 그 돈을 다 잃을 거니?"

"영수야, 자니?"

하고 되풀어 묻던 어젯밤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영수야, 그 돈을 다 잃을거니?"

로 바뀌어 들리기도 했다.

그것은 모래탑이였다. 그의 앞에 수북이 쌓였던 돈은 허무한 모래탑이였다. 그는 호주머니에 남아있던 용돈까지 털털 털리고 일어섰다.

호주머니의 용돈까지 털리고난

영수의 걸음은 휘청거리고…

"형들, 나는 다시 올겁니다. 빚을 갚으러 올겁니다."

"할머니한테 떡국이나 한 그릇 시켜먹고 가지."

김이 몇푼의 돈을 호주머니에 찔러주면서 인정을 베풀었지만 거절하고 밖으로 나왔다.

눈이 부시고 걸음이 휘청거렸다. 차에 엔진을 걸어놓고 갈 곳을 생각했으나, 돈이 없이는 갈 곳이 없었다. 지긋지긋하지만 집으로 들어갈 수 밖에는 없었다.

집에는 아버지가 이상한 여자와 함께 들어와 있었다.

영수는 깊숙이 베개속에 묻고 있던 얼굴을 들었다. 시간이 정오는 된 듯 싶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전화를 돌렸다.

"여보세요."

유리가 전화를 받고 있었다.

"애자씨 일어나셨지요?"

"어머! 영수씨예요? 애자언니는 아까 일어났는데 사장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갔어요. 방금전에"

"왜? 어디로?"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싱글싱글 웃고만 나가데요."

영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속이 울렁거리며 괜히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거칠게 옷을 주워입고 우장창 문을 열며 응접실로 나갔다.

새어머니가 허연 허벅지를 내놓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를 보다가 소스라치게 일어났다.

"어머! 간 떨어지겠네. 지금 나가게?"

"돈 좀 주세요"

영수는 주먹을 불끈 쥐고 강압적으로 그녀에게 돈을 요구했다.

"식사 좀 하고 나가지 그래"

그녀는 영수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밥은 안 먹어도 돼요. 돈이나 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큰 돈은 아버지한테 타 써"

"아버지가 없지 않아요?"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으나 그녀는 영수에게 돈을 가져다 주었다.

영수는 돈을 바지 호주머니속에 꾹 쑤셔넣고 집을 나왔다.

우수에 젖은 애자의 아름다운 얼굴과 능글맞은 아버지의 얼굴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를 괴롭혔다.

그는 거칠게 다운타운쪽으로 차를 몰았다. 손에 땀을 쥐고 포카를 조이며 상위에 수북이 쌓인 돈을 긁어들여야만 이 심란스러운 고통을 잊을수 있을것 같았다.

(계속)

이민의 문화적 자아를 밝혀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자녀교육세미나

효과적인 자녀교육방법
(How to Motivate your Children)

자녀들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싶습니까? 자녀들의 보다 나은 학습태도를 길러주고 싶습니까? 자녀들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기대하십니까?

자녀교육에 관심이 계신 학부형님들과 학생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5월13일(금) 오후7시
■장소 : 동부한인장로교회
40 Yarmouth Rd.
■강사 : *Dr. Wells(토론토교육청)
How to Motivate your children ;Hardest Job Parent ever does.
*조성준선생(스카보로교육청)
자녀교육과 환경
■주최 : 한인교육연구회
■후원 : 동부한인장로교회, 한인장로교회, 한인장로교회, 새한장로교회, 천주교회.

초대의 말씀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 교우님과 귀 교회에 충만하시길 기원 합니다. 본 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박하규 목사님의 취임예배를 드리려고 하오니 바쁘신 중에라도 오셔서 저희들의 기쁨을 같이 해 주시고 박하규 목사님의 취임을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때 : 1983년 6 월 5 일(주일)
하오 4 시
ㅁ곳 : 임마누엘연합교회
63 Dunblane Ave.,
Willowdale
☎ : 488-4141

박하규목사님 약력
1) 서울 문리대 정치학과 수료
1) 한국 신학대학 졸업
1) 고려대학교 대학원(철학) 졸업
1)언론기관및 고등학교 교편
1)토론토대학 연합신학대학(6년)
1)조직신학및 종교철학으로 석사(1969년)
1)조직신학및 종교철학으로 박사(1973년)
1)카나디안 인디안교회와 백인교회 10년간 시무

1983년 5월

임마누엘 연합교회 교우 일동

교역자청빙

본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역자를 청빙코자 합니다.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1매
(영문및 한글)
사진1매(반명함판)
●기 일 : 1983년5월20일까지
●보내실곳 : 18 Creighton Dr.
Dundas, Ont.
L9H 3P7
최태호 장로

해밀톤 한인연합교회
교역자 청빙위원회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모든 去來기업 非業務用부동산 銀行서 賣却 주선

연내에 6百億원규모

9·27措置 이어 財務構造개선 계속誘導

금융단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위해 모든 거래기업및 기업관련인의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을 각은행이 알선,매각을 주선키로했다. 금융단은 1차로 올해 6백억원의 범위내에서 부동산매각을 주선하고 내년부터 범위를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단이 알선키로한것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처분을 위한 9·27조치가 사실상 종결됨에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은행이 거래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계속 지원할수있도록 유도해 나가기위한것이다.

3일 금융계에의하면 모든 거래기업및 기업관련인은 비업무용부동산을 팔아 은행부채를 갚으려할경우 각 은행이 신청을 받아 토지개발공사에 매각을 의뢰, 매각대금(債券)으로 은행부채를 상환토록했다.

기업및 기업관련인이 은행에매각을의뢰할수있는비업무용부동산의 한도는 은행채무범위내에서만 가능하며 올해에는 토지개발공사의 토지개발채권발행범위인6백억원까지만알선한다. 비업무용부동산의 매각을원하는 기업및 기업관련인은 주거래대상업체의 경우 주거래은행에, 기타업체는 가장 채무가많은 은행에 신청하면된다.

신청을 받은 주거래은행은 주거래은행협의회의 심사를거치고 기타기업은 각은행별로 심사를하여 은행채무범위내에서 토지개발공사에 매각을 의뢰키로했다. 의뢰를받은 토지개발공사는 부동산을 매각하면 연5%, 5년만기토지개발채권을 발행하고 의뢰인은 이를 은행채무로 상환할수 있다.

기업및기업관련인이 토지개발공사를 통해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 매각대금으로 받은 토지개발채권을 은행채무로 상환할수 있는 이점이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처분을 촉진하기위한 9·27조치는 주거래대상 1백37개계열기업군(82년말기준) 1천4백54개업체의비업무용부동산을 80년 9월27일부터 83년말까지처분,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기업환경의 불합리한 요소제거를통해 기업체질을강화, 국내산업의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제경제력을 배양하기위한 조치였다.

83년2월말현재 9·27조치에의한 처분대상 비업무용 부동산 8천4백33만7천평중 6천4백55만평이 처분돼 76·5%의 실적을 보이고있다.

서울 IPU총회 10월4일 개회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70차 국제의회연맹(IPU)총회는 관례에따라 오는10월2일 일요일에 집행위원회를 필두로 3일의 理事會에서 議事日程을 확정한뒤 4일 개회식을 갖고13일 폐회식을가질예정이다.

국회의 관계자는 3일 이번 서울총회에서 논의될 의제는 현재 69차총회가 정한▲紛爭해결과 현재및 미래의 세계문제해결 ▲軍備제한과 軍縮분야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할수있도록 유엔을 강화시키는방안등 4개案件과 총회개회전까지 회원국들이 제출할수 있는 추가의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休戰線에 核地雷설치"

美, 한국에 中性子彈배치도 검토

앤더슨밝혀

【워싱턴=李文熙특파원】 미국의저명한칼럼니스트인 잭·앤더슨씨는 2일자 워싱턴·포스트지에실린 그의 칼럼에서 한국에 중성자탄을포함한 전략무기의 배치를 고려하고있으며 유사시 사용될수도 있다는 한반도에서의 중성자탄 사용계획에관해 미국방성 비밀보고서를 인용, 밝혔다.

잭·앤더슨칼럼은 국방성비밀보고서를인용, 태평양지역에서의 사용가능한 비전략핵무기를 열거하면서 항공기에의한 폭탄사용이외에 핵지뢰가 있다고밝혔다.

이 핵지뢰는 휴전선근처에 매설돼 북한이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남침하는경우 원격조정장치에의해 폭발되도록 장치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칼럼은 현재 미국방성내에서 한국에대한 중성자탄배치 논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美국방성은중성자탄에대한 생산을 레이건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1981년8월이래 조용히 생산을 계획해오고 있으며 군사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런 중성자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수있는 지역이며 현재 그러한 논의가 국방성내에서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중성자탄은 랜스地對地미사일에 부착되도록 되어있으나 이러한 랜스미사일이 한국에 아직 배치되어 있지않기때문에 국방성은 한국에서 사용가능한 곡사포용 중성자탄을 생산하고 있으며 동시에새로운 1백55㎜용 중성자탄의 제작도 작업중에있다고 이칼럼은 지적했다.

건물의 파괴없이 사람만을 살상하는 중성자탄은 1977년 서유럽 배치를 둘러싼 논쟁끝에 그배치가 유럽국가들의 반대로 실현되지못했으며 동칼럼에의하면 국방성은 그후 생산을 계속해오면서 한국을 유력사용지로 계획을 수립해온것으로 보도하고있다.

寺刹·鄕校 收支공개 추진

政府 자료제출命令·검사權 신설

佛敎·鄕校재산法 改正추진

문화공보부는 寺刹과 鄕校收支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하고 감독을 강화하기위해 佛敎財産管理法과 鄕校財産法의개정을 추진중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통과를 목표로하고있는 두개종교법의 개정안은 ▲관계당국의자료제출 명령권및 檢査權신설▲공개사찰과 향교의 관람료징수 ▲벌칙의 대폭강화등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문공부에따르면 개정을 추진하게된것은 사찰과 향교의 수입지출을 공개토록하여 불교계 유교계非理의 근원이돼온 금전문제를 바로잡고 관람료징수를 통한 운영및 보수재원을 확보하기위해서라는것. 또 관할청의 자료제출 명령권과 관계공무원의 검사권 신설은 종교단체운영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필요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불교재산 관리법중 사찰관람료 징수 (13조3항)는 사찰을 공개하는 경우에한하며 住持나대표임원이 관람료 징수및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불교단체에서 그대리를 지정할수 있도록 했다. 또 관람료 수입금중 일정비율은 문공부장관이 정하는 사찰이나 소속종단의 유서깊은 시설물등의 보수·관리·환경정화등에 사용토록 돼있다.

民正선 철회키로

한편이와관련 民正黨의 姜景敷문공담당전문위원은 3일『어제 文公部당국자와 이문제에대한 黨政조정협의끝에 정부측이 이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현행법만으로도 충분하다고본다』고 말했다.

"자유友邦단결 더 공고히"

全대통령, 오닐戰略硏소장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3일 상오 청와대에서 訪韓중인국제戰略문제연구소(런던소재)의 로버트·오닐 소장(오스트레일리아人)을접견하고 환담 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자유세계는 많은 장점도 갖고 있으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때문에 상호간의 정치적인 결속이나단결이 잘 안돼 있는것이 큰 약점』이라고 지적,『자유세계의 장점은 최대한 살려나가되 이같은 약점들은 적절히보완해 자유우방간의 단결을 공고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民正고문에 委囑狀

民正黨총재인 全斗煥대통령은 3일낮 청와대에서 民正黨의 李載灐 전대표위원과 丁來赫전국회의장에게 民正黨상임고문委囑狀을준뒤 오찬을함께했다.

이자리에는 民正黨의 陳懿鍾대표위원과 權翊鉉사무총장이 배석했다.

夏穀價 13·7%引上 검토

民正, 빚많은會社 土地취득 금지도

民正黨은 대도시 住宅難을 해소하기위해 앞으로주택임대業 육성법을 제정, 賃貸주택제도를 정착화 시키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불필요한 過多토지소유를 막기위해 借入의존도가 큰기업에 대해서는토지의 취득을 금지시키기로 하는한편 中·長期대책으로 종합財産稅 제도를 도입, 재산세를 累進부과할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民正黨은 3일 제1백16회 임시국회閉會에따른 소속의원들의 歸鄕활동에 앞서 이날 의원정책세미나를 열고 배포한 자료에서 공공주택의 分讓제도를 개선하기위해 轉賣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금년도 보리收買는물가동향·재정형편을 고려하되 농민의 增産의욕을고취하기위해 지난해 인상률 13·7%정도를 유지하고 농가의 出荷희망량을 수매토록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자료는 이밖에도 ▲86년까지 매년올리기로한 당초의 방침을 바꾸어 금년도 비료값은 凍結시키고 營農자금 5천억원중 6월말까지 4천3백억원을 방출키로 정부와 합의했다.

◇캘리포니아에 強震 2일 強度 6·5의 地震으로 건물이 파괴된 美캘리포니아주 코알링가시의 중심가。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을 휩쓴 이날 지진으로 많은 부상자와 건물피해가 발생했다。 【코알링가AP電送=聯合】

오늘 3黨3役회의

政治議案 절충

국회법개정안등 政治議案을 절충하기위한 3黨3役회의가 4일상오11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다.

民正·民韓·국민등 3黨의 사무총장·정책위의장·원내총무등이 참석하는이날회의에서는 4月末 처리時限이었던 국회법개정안의 처리문제와 6月末까지 小委활동의 중간결산을 내기로되어있는 지방자치제 실시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될것으로 보인다.

民韓黨은 이와관련, 3일 상오 당무회의를 열고 3黨3役회의에서 국회법 개정문제에 최대力點을 두고 정치적 절충을 모색키로했다.

多核彈頭장비 B52G型등

美,極東에 新銳機 배치

【東京聯=聯合】 미국은 B52D폭격기를 주축으로한 극동공군력을 크루즈 미사일과같은 다수의 핵탄두미사일을 장비한 신예항공기로 바꾸는중이라고 정통한 군사소식통들이 2일 밝혔다.

이소식통들은 미 극동공군력의 이같은 발전은 지상발사 크루즈 미사일 배치를둘러싸고 서구에서일어난것과 같은 여론의 반발을 일본이나 호주등지에서 일으키지 않고 태평양의 미 전략태세를 크게 강화하게될 것이라고 풀이했다。이 소식통들은 미본토이외에 유일하게배치된 괌도배치 B52D폭격기가 오는10월까지 더욱 현대화된「G」형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G」형이 태평양지역에 배치되기는 처음이다.

소식통들은 이어 B52폭격기의「D」형은 자유투하 핵폭탄만을 장비하고있으나「G」형은 단거리공격미사일(SRAM)을 20기까지 장비할수있으며 SRAM1기는 미니트맨대륙간탄도미사일이장착한것과같은 크기의 탄두를1개씩 장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괌島의 미전략공군 사령부(SAC)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전화회견에서 이 섬에 배치된 B52폭격기가 앞으로 36개월에걸쳐 SRAM을 장비한 신형으로 바뀌게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소식통들은 또 SRAM은 크루즈미사일처럼 지형방해물을 피하는 특수장비를 이용,저공으로 비행함으로써 적의 레이다추적을 곤란하게 한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제트엔진으로 추진되는 순항미사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社會漫評

"동무…데게 뭐디?!"

地平線

현행 법률 가운데서 오직 2개밖에없는 종교관계법 즉「불교재산관리법」과「향교재산법」이 바뀔 참새가보인다. 문공부에 의해 추진중이라는 그 2개법안의 개정안목은 불교종단과 향교재단의 수지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데 있다。이 개정안은 9월 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있다는 얘기다. ▼요즘은 좀 뜸하기는 하나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던 불교종단간 또는 종단내부의 분쟁이 대부분 금전문제에 얽힌 것이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재보다는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는식으로 일반이 오해하기에 알맞은 일부의 풍토였으며 향교재단의 분규 역시 다름아닌 공맹의 가르침과는 먼 재산과 연관된 구석이 없지않은 추이였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관계당국에의한 자료제출 명령권과 검사권의 신설, 공개사찰및 향교의 관람료징수와 벌칙의 대폭 강화에 있다. 하지만 관계당국의 속생각은 사찰이나 향교 수입가운데 일부를 국가의중요한 유형문화재인 건물과 자연환경을 보수·관리 하는데 쓰는것이 옳다는데 있는 것으로도 추측이 간다. ▼하기야 고해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청정한 도량에서 독경하고 참선하며 수도삼매에 머물러야할 스님이나 만민에게 수신제가와 치국평천하의 근본도리인 유교의 덕목을 일깨우고자 4서3경을 외고 그윽한 묘정에서 선현의 제향을 올리는 유생들이 만에 하나라도 돈때문에 시비가 있다면 이는 그들 스스로나 사회가 다 같이 바라는 바 아닐것이다. ▼그렇다 하여 사찰이나 향교가 지니는 역사적인 배경과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려 얽히고 설킨 현실상의 허다한 인습및 관행을 몇줄의 법률조문으로 고쳐 다스린다는 것은 너무 일이 벅차고 중대한게 아닐까. 또 민정당 일각의 소리처럼 타종교와의 형평의 원칙도 도외시할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법개정이나 감사의 강화보다 그 재산 상황을 자율적으로 정리·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동시에 수행내지 수도인들은 서툰 솜씨로 돈을 주무르기 보다 교파를 가릴것 없이 차제에 차라리 본연의 자리에 머물고 수지·계산관계는 현대 경영의 전문인들을고용하는등, 자체정화의 노력으로 정부나 종로들을 납득케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모국으로 가시는 길—KAL

알찬 서비스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읍니다.

대한항공은 주 23회의 편리한 스케쥴로 가장 빠르게 미국과 한국을 직결하고 있읍니다.

로스앤젤리스에서 주11편, 뉴욕에서 주4편, 호놀루루에서 주 8편씩 서울로 직행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뿐입니다.

모국을 방문하실 때는 어느 항공사보다 편리한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을 이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언제나 정성을 다하고 있읍니다.

로스앤젤리스➡서울

편명	출발		도착		경유지
KE011	월·수·토	14:00	화·목·일	18:40	NONSTOP
KE015	화·목·금·일	23:30	목·토·일·화	06:20	앵커리지
KE001	화·목·토·일	10:00	수·금·일·월	19:30	호노루루·東京

뉴욕➡서울

KE007	화·목·금·일	23:50	목·토·일·화	06:00	앵커리지

호노루루➡서울

KE050	월·수·금·일	01:40	화·목·토·월	06:10	NONSTOP
KE001	화·목·토·일	13:30	수·금·일·월	19:30	東京

※ 모든 시간은 현지시간 임
※ 본 시간표는 정부인가 조건이며,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읍니다.

精誠을 다하는 우리의 날개
KAL 大韓航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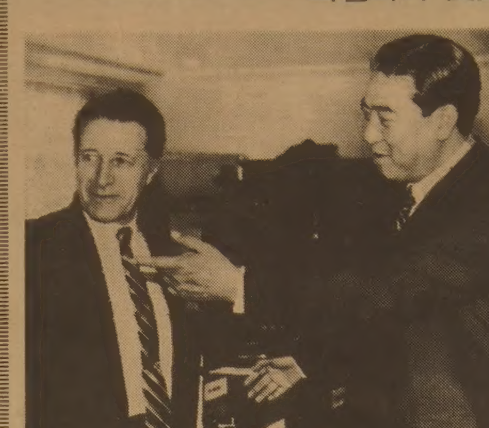
대한항공 Tel: (416)862-8250
390 BAY ST SUITE 720
● 서울여행사 535-6004
● 제일여행사 535-2377
● 신세계여행사 536-2155
● 한국여행사 531-4607

"北傀 誤判 막기위해 對韓 협조체제 強化"

——와인버거 美國防、李外務만나 밝혀

【워싱턴=李文熙특파원】와인버거美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의 對韓방위공약과 일련의 강력한결속다짐은 북한의 오판을막고 또 이들에게 명백한 신호를 보내주기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은 이런 오판과 우발사태를 막기위해 기존의 對韓결속、협조체제를 강화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와인버거장관은 이날 방미중인 李範錫외무장관과 만난자리에서 이같은 뜻을 전하고 이런점에서 15차안보협의회는 매우 유익했으며 한국이 미국의 긴요한 이해지역(Vital)이라고 한것도 한반도에서 어떤종류의 소란에의한 사태도 막으려는 미국결의의 표시이며 강력한 한미유대와 韓·美軍의 연합체제가 이런것을 효율적으로 이뤄나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李外務·와인버거 歡談 訪美中인 李範錫외무장관이 2일국방성에서 캐스퍼·와인버거美국방장관과회담하기에앞서 환담하고있다. 【워싱턴 2日AP電送=聯合】

한국방위력增強 다짐 決議案 上院에 내겠다

헬름즈議員

제시·헬름즈 상원의원(공화·노드캐롤라이나)은 2일하오『미국의 對韓방위공약은 행동으로 증명될것』이라고 말하고 『韓美방위조약체결 30주년이 되는 금년안에 對韓방위에관한 새로운결의안을 의회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헬름즈의원은 이날 美의회를 방문한 李範錫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방위공약과 미군의 한국주둔이 북한의새로운 침략을 막는 강력한 억지력이 되어왔다고 밝혔다.

北傀門戶일부 開放 金正日체제 誇示로

【東京=聯】북괴는 金正日후계체제의 안정을 과시하기위해 한정적인 문호개방정책을 실시할지도 모른다고 일본의 한 정보잡지가 2일보도했다.

『選擇』이라는 이 잡지는 5월호에서 당조직과 80만 군대는 물론 노동자단체와 정부기관을 거의 완전히 장악한 金正日이자신의 업적을 北韓민중에게 과시하기위해 『한정적이며 점진적인 문호개방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建物박살 火災까지

美에 震度6·5強震 道路 通信끊겨

【코알링가(美캘리포니아州)AP UPI=聯】미국캘리포니아州 중부지역에서 2일하오4시42분(한국시간 3일상오8시42분) 강력한 지진이 발생, 코알링가지역의 건물들이 무너지고 화재가 발생, 상당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리히터 지진계로 진도6·5를 기록한 이번 강진의 진앙지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의 중간지역에 위치한 코알링가에서 서북쪽 8㎞지점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코알링가에 이르는 도로에 군데군데 균열이 생기고 통신이 두절됐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의 비상 대책반 대변인은 코알링가지역 상공을 비행한 항공기조종사들이 여러군데의 균열된 지면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고 용암가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것을 목격한 것으로 보고해 왔다고 전하고 첫번째의 지진에이어 8~9분간격으로 여진이 계속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진동은 이곳을 중심으로 수백마일 떨어진 네바다州의 라스베이가스, 로스앤젤레스등지까지 감지됐으며 계속된 여진으로 인해 샌프란시스코灣의 지하터널을 통과하는 통근열차가 멈추고 인근 살리나스 지역의 주민들이 거리를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警護員 오발

페루 大統領무사 行人3명 다쳐

【리마=聯】페루경찰은 2일 페르난도·벨라운데 대통령이 이날 차편으로 리마시중심가를 통과할때 경호원의 오발로 총성이울렸다고 발표했다.

경찰발표문은 벨라운데대통령은 무사했으나 행인 3명이 오발사고로 경상을 입었다고 말하고 오발사고는 경호원이 소지한 총의 방아쇠가 한행인의 옷자락에 걸려 일어난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달리 엘·칼라오紙는 대통령의 차량행렬이 지나가는 순간 한여인이 『대통령을 죽여라』고 고함을 지르자 수행경호원이 발사, 행인3명이 부상한 것이라고설명했다.

경찰설명은 이어 12년간의 군사통치후 지난80년 대통령직에 당선된 벨라운데대통령에 대한 암살기도가 있었다는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한국産 컬러TV 덤핑規制하라

美業界、商務省에 진정서 제출

【워싱턴=聯】미국의 TV생산업계는 2일 한국및 대만산 수입컬러TV에 대한 덤핑규제진정서를 商務省에 제출, 한국산 컬러TV의 對美수출에 영향을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컬러TV보호위원회(COMPACT)와 산하 4개 勞組들이 商務省에 제출한 진정서는 한국과대만으로부터의 컬러TV수입이 지난해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軍事均衡 실현돼도 蘇, 유럽서 戰略優位

【뉴욕=聯】미국과 소련간의 군사적 균형이 설사 실현되더라도 유럽에서의 소련의 전략적우위는 유지될 것이라고 2일 발매된 美시사주간지 타임이 헬무트·슈미트前서독수상을 비롯한 서방정치중진인사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외信 안테나

타임은 최근 서독 함부르크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現상황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참석한 저명한 서방정치인사 45명이 이같이 우려했다고 말했다.

팔人문제 亞太회의 40여국 3백명참가

【콸라룸푸르·베르나마SPA=聯】유엔이주관하는 팔레스타인문제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지역회의가 3일 14개국 외상을 비롯, 域內40여개국과 국제기구 대표 3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3일 콸라룸푸르에서 개막됐다.

史上처음 冷凍정자로 임신한女人

멜번서 13개월째인 9월出産예정

【멜번(濠洲)AP=聯】사상최초로 냉동된 태아로임신한 한 여성이 실험실에서 태아가 인공수정된지13개월만인 오는 9월 출산할것 이라고 멜번의 모내시대학 의사들이 1일발표했다.

모내시 대학의 의사들은 태아를 영하 2백도의 액화질소속에 4개월간 냉동보관한후 지난1월 이를 다시 녹여 빅토리아출신의 한 여인에게 이식했다고밝혔다.

의사들은 이 여성이 임신 14주째에 있으며 태아도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고 말했다.

胡耀邦 東歐방문길

【北京聯=聯】중공이 최근 東區의 소련권 국가들과 접촉을 확대하고있는 가운데 中共黨총서기 胡耀邦(68)은 4일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기위해 北京을 떠난다.

胡耀邦의 이번방문은 그가 黨총서기에 취임한이래 아시아지역을 벗어난 첫외국방문이다.

胡耀邦의 루마니아방문은 지난해 루마니아대통령 니콜라이·차우세스쿠의 중공방문에대한 답방으로 알려졌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illegible]

◇83년 여름컬렉션 T셔츠와 버뮤다를 組合한 83년여름 컬렉션. 【키스톤=聯】

노다지캐기에 바빠 埋沒동료 救助외면

海外토픽

【캐우모트(필리핀)AP=聯】일확천금에 눈이먼 수천명의 필리핀인들이 한외딴섬의 폐광에서 금을 캐다가 낙반사고로 매몰돼 갇혀있는 70명정도의 동료들에 대한 구조작업은 거들떠보지도 않은채 제각기 금을 캐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고.

지난1월 어떤 사람이 마닐라동남쪽 7백45㎞의 마사펠리드섬에서 뿌리에 금이 덮인 카사버란는 식물을 캤다는 소문이 나돈후 많은 사람들이 이섬의 한폐광에 몰려들어 금을캐다 일련의 낙반사고가 발생했는데 아직 매몰된채갇혀있는 약70명을 구조하기위해 육지에서 수송된 불도저 한대가 구조작업을벌이고 있다. 【AP】

징기스칸 32代孫이 內蒙古간부에 再選

징기스칸의 32대손인 오키루야크트(83)가 최근 內蒙古의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부위원장에 재선되었다고 北京의 영자지차이나·데일리가 2일보도.

이 신문은 또 오키루야크트가 매년 內蒙古 남동부에 위치한 징기스칸의능을 찾아가 제사를 지내왔으며 『금년에도 건강이 허락하는한 제사를 지내러가겠다』고 말한 것으로전했다. 【UPI】

高在旭 言論기념賞 어제 李禹世씨받아

亞細亞新聞財團이 제정한 高在旭紀念言論賞 施賞式이 3일 상오 東亞日報社 회의실에서 열려 제6회 수상자인 서울신문李禹世主筆에게 PFA 金相万본부회장(東亞日報 명예회장)이 증서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PFA한국위원회 張康在회장및 이사진이 참석했다.

모범靑少年등 초치 李順子여사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3일하오 李東燦군(12·서울崇德국교6년)등 전국모범청소년 26명과 金鍾變씨(37·서울崇德국교 교사)등 지도교사 26명을 청와대로 초치, 다과를 베풀뒤 우표책1권씩을 선물로주었다.

이자리에는 李奎浩문교장관, 柳炯鎭대한敎聯회장이 배석했다.

公職者 외국선물들 박물관에 展示키로

총무처는 公職者倫理法시행에따라 공직자들이 외국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은선물1백88점중 문화·예술적 가치가있는 1백18점을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각각 전시할 예정이다.

內外動靜

▲尹誠敏국방부장관은 3일 육군 오뚜기부대가 실시한 『예산절감시범』을 참관하고 각군은 예산의 생산적운용에힘쓸것을당부.

人事異動

文公部 ▲宗務官室 李昌孝(1일자) ▲문화재관리국 문화재補修과장 尹洪爵(4월22일자)

科技處 ▲원자력국장 朴時烈(駐美대사관 과학기술관)

勞動部 ▲京畿道지방노동위원 崔然宇(공보관)(6일자)

本社來訪

▲李夏雨씨(국회의장비서실장) ▲尹汝雋씨(〃비서관) ▲盧昌燮씨(국회부의장 비서관)신임인사차

社說

미테랑의 中共訪問

—韓半島緊張상태 잊지 않도록

우리의 중요한 전통적 友邦으로 손꼽히는 프랑스의 미테랑大統領이 3일부터 中共방문日程에 접어들었다.

본시 미테랑大統領은 中共을가리켜 프랑스의 『명확한 파트너』이자 國際政治의 주요한 『均衡세력』이라고 평가해 왔다. 하기야 최근엔 인도차이나문제의 해결方案을 에워싼 異見이 없지 않았으며 무역관계 또한 그다지 순조롭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었다. 이번 방문목적은 양국간의 外交및 交易관계를 다시 活性化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프랑스와 中共간에는 國際關係를 바라보는 미묘한 見解一致의 기조가 관측되는 것도 사실이다. 다같이 美·蘇두超大國의 경쟁과 「패권주의」를 위험시한다는 것이다. 양국의 北京頂上會談에서는 經濟·技術協力및 文化交流의 증진에 더하여 國際情勢 전반에 걸친 토의를 진행할것으로 보인다. 美·蘇동향에 대한분석도 엇갈리게 마련이겠지만 베트남軍의 캄보디아 駐屯을 철수시키는 방안과 함께 韓半島정세에 관한 검토여부도 관심을 끌게한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미테랑大統領은 韓國공식방문 초청을 이미 수락한 입장이다. 다만 그 시기가 자주 천연된 느낌인데 빠르면 올가을에 기대될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파리의 政界내부에는 아직 北韓승인론이 가시지 않았고 다른한편 그곳 일부 政治人은 평양과 修交하는 代償조치로 東歐와 어떤나라로 하여금 韓國과 修交하도록 유도하면 어떠냐고 거론하기도 했다. 그같은 動向을 奇貨로 北韓의 對佛미소政策이 끈질기게 계속됐었다.

하나 良識있는 프랑스人들은 北韓社會가 「收容所列島」로 점철된 폐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들 하는 입장이다. 게다가 北韓은 1人당 국민소득이 韓國의 4분의1 정도이고 수십억 달러의 外債상환능력도 의문시되는 형편이어서 도저히 매력있는 交易파트너라고는 간주되지 않는다.

물론 北韓經濟의 그같은 難局은 주로 武力赤化統一을 노리는 무모한 軍事力증강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韓國政府가 제의한 南北韓최고當局者會談도 평양측에 의하여 지금껏 거부되고있다.

이러한 현실적 與件을 감안할적에 우리는 프랑스의 友人들이 결코 전통적인 韓佛友好관계를 손상시키면서 어떤 형태건 北韓을 고무해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시기도 적절치 않다.

오늘날 美·蘇의 대결을 가져올지 모를 6개의 위험지역으로는 中東·韓半島·유럽·中蘇국경·南아프리카·中南美등이 자주 지적되고있음을 본다. 특히 韓半島에서는 北韓이 蘇聯및 中共과의 軍事同盟을 배경으로 수적으로 우세한 軍事力을 休戰線가까이 집결시키고 言必稱 「戰爭준비 완료」를 호언하는 형편이다.

심상찮은 緊張高潮의 여러가지 조짐으로 미루어 北韓측이 誤判 또는 背景國 사주에 따라 南侵을 감행할 적에는 급기야 美·蘇직접대결 내지 核武器사용사태를 유발하게 되기 쉽다.

두말할것없이 韓國人은 조국강토가 「세계戰略의 요충」이나 「위험한 화약고」라고 지칭될때마다 착잡한 느낌을 금치못하게 된다. 그리고 韓國人은 이半島가 「분쟁지대」대신 平和地帶로 확인될것을 염원하여 마지 않는다. 하나 平和와 安定을 위한 우리 자신의 政治·外交的노력에는 한계성이 감촉되는바 없지않다.

우리는 프랑스의 벗들이 國際政治무대에서 好戰的인 北韓을 고무하지 않음은 물론, 韓半島의 첨예화된 緊張상태를 완화하는데 있어 상응한 寄與를 증명할수 있으리라는 期待를 강조해 둔다. 平和를위한 均衡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核雨傘」전략과 韓國

—中性子彈 배치檢討說에 생각함

올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전략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이 미국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그 첫예로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이 지난 1월23일 서울을 방문중이었던 마이어 美육군참모총장의 기자회견담이었다.

그가 이날 밝힌 전략개념은 「속전·속결」에서 장기전 태세로 바꾸고, 불가피할경우 전술핵무기를 쓴다는 두가지였다. 아마도 70년대 카터 행정부이래 한반도방위전략에 관한 가장 중대한 발언이라고 할수있는 내용이었다.

뒤이어 와인버거국방장관은 2월초 의회에서 한국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더불어 방위의 「제1선」으로 표현했다. 마이어총장의 서울발언과함께 미국의한반도방위공약이 유럽의 나토수준임을 공개적으로 다짐했다고 하겠다.

미국방성이 한국에 중성자탄배치를 검토하고있고 이미 휴전선일대에는 「핵지뢰」가 묻혀있다는 잭·앤더슨의 기사도 공식 확인은 안됐지만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과 선이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원래가 미국의 한반도방위공약은 휴전협정체결로 6·25전쟁을 결산한 이래 「핵우산」으로 뒷받침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70년대 카터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주한미군에 배치돼있는 핵탄두 전용 「서전트」미사일」철수계획이 공개된 뒤 「핵우산」전략은 뒷전에 물러난듯한 인상을 줄 정도였다.

마이어총장의 전술핵발언은 이러한 분위기에 강력한 쐐기를 박은 것이었다. 더구나 그의 「장기전 전략」은 한반도 방위개념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할만큼 확대된 것임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의 방위공약이 적극적인 전략체제로 강화되고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은 세계적인 규모에 있어서의 전략무기체제발전,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한 동북아에 있어서의 군비강화 무드와 관련돼 있다는것이 특징이다.

소련이 동북아를 겨냥한 중거리 핵미사일 SS20에 언급한 것은 지난번 총선거를 앞둔 서독에서 였다. 그뒤 지난달 2일에는 극동배치 SS20이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극동의 SS20을 1백8기로 보고있다.

이와함께 미국의 동북아방위전략도 일본의世紀保障을 중심으로한 해군력의 전략배치, 중동의 유전지대 특히 이란사태 한반도의 전적연결로 바뀌고있다. 최근에 공개된 미국방성의 84~88 5개년 방위지침서와 3차세계대전 시나리오가 이러한 전략편성의 윤곽을 나타내고있다. 유럽에서 성숙중거리핵무기 군축협상이 성과를 거둔다해도, 동북아가 새로운 군비경쟁지대로 남을가능성은 커보이는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공약이 「핵우산」으로 뒷받침되고있다는 이론적 현실 자체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는게 아니다. 그러나 마이어발언에 이은 잭·앤더슨의 중성자탄배치검토설은 새삼스럽게 한반도가 안고있는 긴장과 위기의 잠재성에 눈을 돌리게 하고있다.

핵우산은 어디까지나 「핵우산」에 그쳐야한다는것이 자유세계집단방위의 기본적인 이상이다. 동북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주목하면서, 북괴가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평화」를 받아들이는 실질적 변화를 보이기를 촉구해둔다. 그와 더불어 한반도와 관련된 핵전략에는 우리자신의 적극적인 참여와 발언이 있어야 될것임을 잊어 안될 일이다.

政局往來

자유세계의 團合강조

全斗煥대통령은 3일 상오 英國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로버트·오닐所長과 약 1시간동안 국제정세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며 특히 자유세계의 단합을 강조.

全대통령은 『자유세계·국가들 가운데는 政權유지와 관련해 선거준비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그기간동안 공백을 초래 하는등 약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지나친 自國 이익추구로 자유세계가 단합과 단결이 잘 안되는것도 큰 약점』이라고 지적.

이에 대해 오닐소장은 『자유진영의 단합이 제대로 안돼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同感』이라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

오닐소장은 또 분쟁위협지역에 관한 全대통령의 질문에 『韓半島와 中東정세가 가장 긴박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中東은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정 상태에 있으며 각국의 이해가 엇갈린 油田이 있는데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와 이스라엘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고 본다』고 분석.

市中改閣說 사실無根

民正黨의 權翊鉉사무총장은 3일 『市中에 떠도는 改閣說은 내가 아는바로는 事實無根』이라고 한마디로 一蹴했다.

그는 이날하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改閣을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강력히 부인하면서 『改閣說은 여러분들이 만드는것 아니냐』고 웃으면서 농담.

權총장은 또 『改閣說이 왜 나오는지 그원인을 생각해본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어떤 사람은 무슨이유로 적합하지 않다는지, 누구는 어떻고 안좋으니 갈아야 한다든지, 하는 얘기들은 나올수 있는것이지만 누구는 어느자리로가고 그자리에는 또 누가 앉고 하는식으로 풍문이 나도는것은 상당히 의도적이고 조직적인것』이라고 못마땅한 표정.

이에앞서 權총장은 2일하오 巨額으로 밝혀진 金奎成부총리의 盜難피해액에 대해 『피해액이 5억원이라는데 그분이 내는 綜所稅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그돈을문제삼아야할것』이라며 『財力이문제라면 公職에는 빈털터리만 앉아야한단 말인가』고 反問하면서 金부총리의 도난이 법률적,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수없다는 견해를 피력.

"改閣풍문 나도는것은 상당히 의도적이고 조직적인것"

政治議案 타결 더 중요

3일의 民韓黨당무회의는 4일 열릴 3黨3役회담에서 4월말時限을 넘긴 국회법개정과 여야간 합의한5월말 6월초 임시국회 소집을관철하는문제를중점토의.

이날 林鍾基총무가 『時限을 넘긴 국회법개정문제를 4일의 3役회담에서 중점논의하겠다』고 보고하자 吳洪錫의원은 『어떤 경우라도 임시국회를 연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야한다』면서 『다음회기에서 국회법 개정문제가 타결돼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심의권이 발효되도록하자』고 3役들의 政治力발휘를 촉구했다.

이에 柳致松총재는 『임시 국회를 여는것도 중요하나 국회법개정, 지방자치제등 政治議案의 타결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모든것이 대화로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

한편 회의가 끝난뒤 林총무는 民正黨의 「改革立法 4년내 改正不可방침」에 대해 『民正黨이 일단 3役회의에 응했으니 가능성의 제1단계는이루어졌다』고강조.

그는 이어 『가능성없는 대화는 백번해도 소용없고 국민을 우롱하는처사이며 생산성있는 국회도 될수없다』면서 『먼저 民正黨의 不可방침이 재조정되지않는限 4일의 회담은 무의미할것』이라고 은근히 으름장을 놓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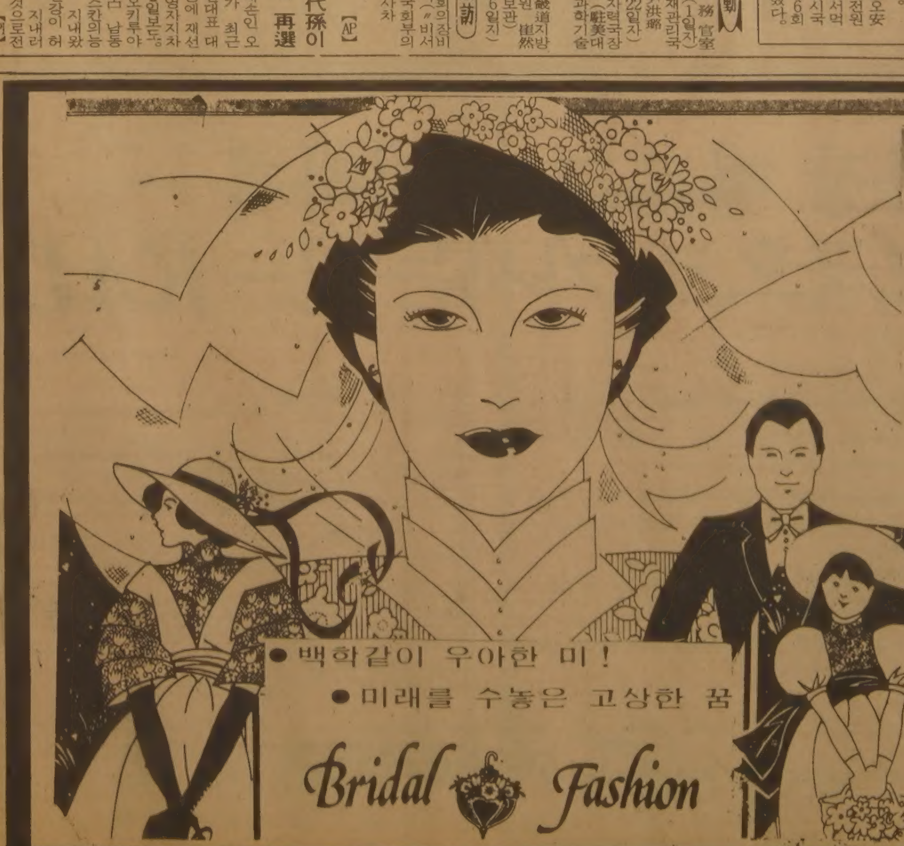
12代總選에 必勝목표

국민당은 3일 임시국회가 폐회됨에 따라 소속의원들의 歸鄕활동을 돕기위해 「必勝기반구축과 民權신장을 위한 활동계획」이란 자료를 의원들에게 배부.

이 활동指針書에 따르면 기본목표를 12代總選의 必勝에 두는 한편 19개有故지구당을 정비하고 특히 지방자치제의 단계적인 실시에 대비하여 市道別로 20명이상, 대도시區단위10명이상등으로 有力당원을 顧問또는 諮問役으로 위촉한다는것.

이와함께 解禁人士및 前職공무원중심으로 무소속의 有力신진인사와 특히 청년·여성층을 대거 확보하는 작전을 펴기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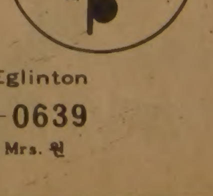
한편 金鍾哲총재는 이날상오 安養컨트리클럽으로 소속의원전원을 초청, 黨職파동이후 서먹서먹했던 분위기를 조정하고 임시국회동안 노고를 치하하는 제6회 거북이親善골프모임을 주선했다.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금) 아침10시~저녁 8 시
(토) 아침10시~저녁 7 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Mrs. 원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4차례 男便살해 企圖

金여인 現場검증 "연탄가스로도 두번"

서울乙支병원 독살사건의 범인 金연주씨(39)는 유로 남편 廉弼洙씨(37)를 독살하기전에도 모두 4차례나 살해하려했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3일상오 6시 서울지검 趙晉濟검사 지휘로 乙支병원에서 있은 현장검증에서 확인됐다. 이날검증에서 독살범 金씨는 지난 4월13일과 16일 두차례에 걸친 乙支병원안·불특정다수인 살해기도 때에도 남편의 독살을 기도했었고 지난해12월과 금년2월에도 두차례에 걸쳐 연탄중독으로 위장、살해하려했다고 말했다。

金씨는 지난달12일 하오 9시께 乙支병원별관 4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유산균음료 23개가운데 11개의뚜껑을 약간열고 주사기로농약을 집어넣었는데 이중2개는 뚜껑이 찢어져 버렸고 9개에만 농약을넣었다는것。

이때 金씨는 남편에게 먹일 1개에는 농약을 더 많이 넣어 남편 병실로 갖고 가려다 복도에 환자들이 있어 5층 공동취사장 싱크대위에올려놓았다。

그후 金씨는 남편에게줄 1병만 병실 시트밑에숨겨둔 10분뒤 취사장엘 가보니 문이 잠겨있어 그대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金씨는 다음날인 13일상오10시께 유산균음료봉지를 다시찾으러 갔으나 봉지가 없어져 남편에게주려고 숨겼던 요구르트를 4층과 5층사이 계단벽에있던 쓰레기통에 버렸다。

金씨는 또 4일후인16일 낮12시께 전번과 마찬가지로 4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유산균음료 17개에 농약을주입、남편독살용으로 1개를 따로보관했다。

金씨는 유산균음료 10개가든 봉지를 4층엘리베이터옆 세탁물통위에 놓고 밖으로나가 459호실 환자崔明根씨방으로전화를걸어『병실환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했다。

金씨는 崔씨의 누나 崔英子씨(51)가 이중 1개를 마시고 구토를 하는등 소동이 벌어지자 침대밑에 감춰둔 남편독살용 유산균음료도 4、5층사이 계단벽 쓰레기통에 버렸다는것。

金씨는 불특정다수인에대한 살인혐의으로 남편의 독살을 위장하기위해 崔英子씨가 환자들에게 요구르트를 나누어줄 때 남편도 함께 마시게 할 계획이었다는것。

한편 金씨는 지난해12월초 세들어 살던 서울銅雀區新大方洞618의33 黃金禮씨(52)집 1층의 작은방바닥에 구멍을뚫어 연탄가스중독사고를 위장、남편을 살해하려고 했었으며 실패하자 지난2월에는 안방에 불이핀화덕을 갖다놓고온가족이동반자살을기도했었다고진술하기도했다。

金씨는 또뚫린구멍을 통해 연탄가스가 충분히스며들지않자 지난2월에는 안방에 연탄불이핀 화덕을갖다놓고 온가족 동반자살을 기도했었는데 당시엔 남편 廉씨가『죄없는 아이들까지 죽일필요가 있겠느냐』고 만류해 그만두었다고말했다。그러나 당시 장남이 보았느냐는 경찰의 질문에는『자고있어 보지못했다』고 진술했다。

이구멍은 이집에 새로이 사온 宋모씨(32·여)가 지난3월30일 발견、시멘트로 막아두었는데 지름 7cm가량의 어른주먹만한 타원형 구멍이 뚫려져있었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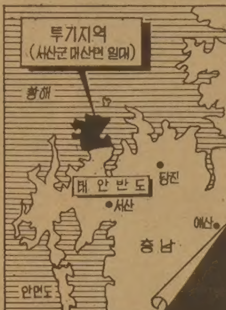
◇끔찍한 再演 3일새벽乙支병원에서 실시된 독살사건의 현장검증。金연주씨가 주사기로 우유에 독을 주입하는 장면을 실연해보이고 있다。

泰安반도 갯마을에 때아닌 부동산熱風

충남瑞山郡大山面 "공업단지 들어선다" 소문돌아

두달사이 최고10倍껑충

◇부동산투기 열풍이 몰아치고있는 충남 瑞山의 泰安반도。工團을 조성한다는 바람에 寒村일대의 임야가 하루가 다르게 값이 뛰고있다。(사진은 瑞山郡 大山面 花谷里일대)



【瑞山=徐華淑기자】충남 瑞山郡大山面 일대에 부동산붐이 크게일어 조용하던 갯마을이 폭풍을 만난듯술렁이고 있다。泰安반도 북단인 이곳에 때아닌 부동산투기바람이 불기시작한 것은 지난 3월초순。국내 굴지의 재벌인 H건설이 大山面일대의 3백50만평에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소문은 차츰구체화됐고 이와 때를 같이해서 낯선사람들이몰려들어 인근의 산야를 마구사들였다。

그러나 지난4월부터는 아파트 붐이 고개를 숙인탓인지 서울을 비롯한 釜山·大田·鎭海·安養등 전국각지의 부동산투기군과 복부인、자가용까지 떼지어 몰려들면서 땅값도 2개월사이 평균5배에서 최고10배까지 치솟았는데 현지주민들은 매물을 내놓지않아 값은 더 오를 전망이다。

瑞山읍에서 버스로 40분거리인 獨串里 경로당。2일 상오중인데도 일대의주민들 10여명이 낮일을 나가지않고 이곳에 모여앉아 땅을 보러온 낯선손님들을 맞기에 여념이 없었다。

복덕방이 없는탓에 경로당을 이용하고있다는 주민들은『평상시 같으면 한달가야 외부사람 한명 구경할둥말둥한 이곳에 요즘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전국곳곳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 주민들에의하면 땅을 사러오는 사람들중에는 공단계획을 미리알고 있는듯 후보지중에서도 요지를 싼값에 사려는 사람들이많다는것。또 서울 龍山區東部二村洞의 H·S부동산의 명함이 공공연히 나돌아 H건설의 일부직원 또는 청탁을받은 사람들이 복덕방을 앞세워 임야를 미리사두려는 속셈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제시하기도했다。

투기바람이 가장 심한곳은 大山面吾池·獨串·大竹·花谷·大路등 5개里로 이곳 복덕방들은 다방등에진을치고 상담을벌이기에 부산표정이고택시운전사들도 읍내에서 현지까지 답사객들을 실어나르느라 신바람이 나있다。

이곳 부동산이 붐을이루고 있는것은 군청에서도 뚜렷했다。

군청민원창구에는 때아닌 임야대장등본을 떼러오는 사람들로 붐비고있는데 보통때에는 하루평균 60~70장정도씩 발급했으나 4월들어서면서부터는발급량이 폭주、중순께에는 1백장을넘었고요즈음은무려3백20장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편 瑞山전화국도 러시로 한직원은『최근들어 서울을비롯、釜山·大邱·光州등지에서 하루에도 수십통씩 시외전화가 걸려오고있다』고 밝히고 이들전화는 대부분 瑞山邑내 복덕방들과연결되고있다고말했다。

최근 거래시세로본 이곳의땅값은 가장인기있는 花谷里일대의 임야가 평당2천원대。건설부가 고시한 기준지가가평당2백원선인데 2월말현재의거래싯가는 5백원정도에불과했었다。

주민 金正昌씨(62·大山面花谷里)는『花谷里일대의땅은 거의다팔리고 내땅 2만평정도가 남았는데 며칠전 釜山사람이 평당3천6백50원씩에 팔라는 전화가왔다』며 평당 4천원은 받아야겠다고 말했다。이토록 값이 뛰자 2개월전에 6천여평을 3백만원에 계약했다는 이마을 金敎官씨(43)는『너무 밑진것같아 해약을 해야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大山面 직원에의하면 지난2개월동안 面내에서 팔린땅은 30여필지 20여만평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임야라는 것이다。

중앙분리대 넘어선 승용차 트럭에 깔려 "펑"…5명死傷

京釜高速道서

【淸州】3일상오9시께충북淸原郡南二面石室里앞경부고속도로(서울기점1백26km)에서 대구방면으로 가던 대구1가7635호 레코드로얄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서울방면으로 오던 인천8아2152호 2·5톤 엘프트럭밑에 깔리면서 폭발、불이나 두차의운전기사등 3명이 숨지고 중상을입은 崔홍진씨(61·경북金陵郡龜城面陽角洞)등 2명은淸州성심정형외과에입원가료중이다。

이사고로 승용차와 트럭이모두불타경부고속도로상행선이40분간불통됐었다。

이날 사고는 승용차가중앙분리대를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엘프트럭을 들이받아 일어났는데 승용차에 타고있던 신원을 알수없는 운전사와 승객1명은 소사했고 트럭운전사 서씨는그자리에서 숨졌으며 트럭에 타고있던 崔홍진씨등 2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트럭에 불이붙는순간 차문을열고 나와 목숨을 건졌다。

숨진3명은 다음과같다。

▲孫수구씨(41·승용차운전사·대구시北區魯院洞3街433의1)▲김평순씨(38·孫씨의부인)▲徐민욱씨(22·엘프트럭운전사·경북金泉市龍頭洞16)【韓】

五大洋건설、방위성금7千萬원

五大洋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姜政龍씨(서울특별시검도회장)는 3일 7천만원을 방위성금에 써달라고본사에기탁해왔다。

◇본사 曺斗欽편집국장에게 방위성금을 전달하고있는 姜政龍씨(右)。

巨額수표 탈취한 犯人몽타지 작성

산업은행거액수표도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中部경찰서는 3일 사고당시 범인을 목격했던 朴興淳씨(28·산업은행출납부주임)、수표를 도난당했던 朴棕熙씨(22·산업은행 섬유화학부행원)、수표를 접수한 沈鍾業양(26·산업은행채권부행원)등의 진술을토대로 범인의 몽타지를 작성、전국에 수배했다。

이들의 진술에의하면 범인은 40~45세가량이며 1m65cm안팎의키에 머리가 약간벗겨졌다。또차림은회색싱글양복에 검은색의 남방셔츠를입었으며 서울말씨를 쓰고있었다。

◇범인의 몽타지

兄弟가 피살체로

富川市 야산서發見

【富川】3일하오2시40분께 경기도 富川市深谷1洞산82의1 富川南中뒤 야산중턱에서 고탁씨(38·고물행상·주거부정)의 장남 상현(7)·차남 주현군(5)형제가 얼굴과 배등을 흉기로 찔리고 둔기로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된채 숨져있는것을 신인철군(15·富川南中3년)이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신군에 의하면 이날하오 학교에서 체육시간을 이용 학교뒷산으로 구보를 하던중 산중턱에 이들 형제가 얼굴과 배등을 흉기에 찔리고 둔기에 맞아 숨진채 베이지색 세무점퍼에덮혀있는것을 발견했다는것。

이들 형제는 어머니 심모씨(28)가 1년전 가출한후 아버지 고씨마저 행상을하며 떠돌아 다니게되자 상현군은 큰고모집인 富川市深谷1洞586에、주현군은 작은고모집인 서울恩平區應岩洞603에서 각각 맡겨져 고모들에의해 길러졌다。【韓】

3살女兒 유괴 20일째

【大田】大田市中區邊洞19 宋의수씨(33)의장녀 영주양(3)이 유괴된후 어린이날 이틀앞둔 3일현재 영주양의 생사여부는 물론 유괴범의행방도 찾아내지 못하고있다。

영주양은 지난달13일 하오3시30분께 집앞에서 놀다가 없어졌는데 이날하오 5시께 집으로돌아온 영주양의 아버지 宋씨가 大田西部경찰서·桃馬洞파출소에 이사실을신고했다。【鄭】

◇金相台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소령계급장을수여받는 이웅평소령。가슴엔「선임조종사휘장」과 병과배지 (정보) 가 반짝인다。

이웅평勇士 임관식

어제 空軍少領으로

이웅평소사가 3일 우리공군소령으로 임관되었다。

이소령은 이날상오 공군본부에서 가진 임관식에서 金相台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임관사령장과 계급장을 수여받았으며 이자리에서『대한민국군인으로서 충성을다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숨을 바치겠다』고 선서했다。

이소령에게는 이날 국가안보에 이바지한 공로로 정부가주는 보국훈장 天授章도 아울러 수여됐다。

한편 공군본부및 재경부대 전투조종사 2백여명은 이날하오 공군회관에서 축하연을 베풀고 이소령의 장도를 축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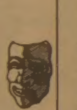
박사 院長 팔방미인… 崇田大 朴宗三교수

"청소년 善導는 진심으로 꾸준히…"

중고등학생의 교복과 머리가 자율화된후 청소년선도는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정부가 청소년의 달인 5월을 맞아 갖가지 행사를 펼치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崇田大 朴宗三교수(46·사진)는 누구보다도 청소년의 달 행사가 걸치레보다 청소년의 마음속을 파고드는 알뜰한 행사가 되기를 기원한다。『대학교수가 연구하기에도 바쁠텐데 별난경을 다쓴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이해가 간다。

그는 사회사업학박사학위를 가진 교수이기전에 우선 光州소년의 마을 원장이다。여기에 치과의사와 목사란 직업이 곁들여지면『별스런 사람이군』하는 소리와함께 품었던 의심을 단숨에 풀어버리게 된다。



그의 청소년에 대한 사랑은 자신이 6·25때 황해도信川에서단신월남한 고아라는사실때문에 깊이를 더해준다。땅굴생활도했고、시장에 버려진 배추도 주워다 먹었다。이같은 어려움에도 좌절하지않고 일어섰기에 더 그런지도 모른다。

스스로가 고생을 한데다 길거리를 방황하는 고아들이 많은것을 보고 돈을 벌어야겠다는생각에서 서울大 치대에 들어갔다。『치대에 들어오면 돈을벌게되느냐』는 핀잔을 교수들로부터 수없이 들었다。

치대를 졸업했으나 불우아동을 이끌기에는 어딘가 부족한듯해장로회 신학대학에 들어갔다。신학교를 졸업하고 光州기독병원에서 수련의과정을 밟으면서 불우아동속으로 뛰어들었다。

어느날 한소년이『옛날엔 훔쳐먹고 살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난후는 훔칠수도없어 먹고살수없으니 책임져라』고대들었다。그때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함을 느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신학교를 거쳐 버지니아커폰웰스대학에서 사회사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0년에 귀국、대안없는 설교보다 따뜻한 밥한그릇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미국친구들의 도움으로 소년의 마을을 전남 光山郡飛山面에 마련했다。그리고 불우아동을 선도하고 교육시키기시작했다。이결과 지난10년동안 1백50명이 사회로나가 자립했다。

『청소년선도는 즉흥적이어서는 안됩니다。꾸준히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鄭在蘭기자】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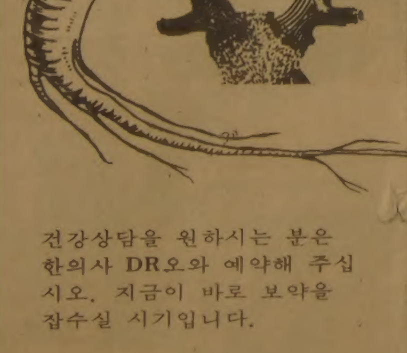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팰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中國良藥 大量供應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MARVIN STAR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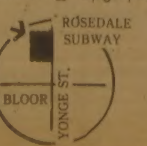
조 의 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O'INCHON RESTAURANT

오'인천식당

아늑한 분위기, 고향의 멋과 정감이 깃든 오'인천, 가족, 벗, 다정한 연인들과 YONGE ST. 를 거닐면서 ROSEDALE SUBWAY를 이용하시어, 함께 들려 주세요.



□한식, 일본식, 양식, 주류일절취급

1112 YONGE ST.
☎921-4468 박승흥

海外토픽

壁紙에 포함된 砒素가원인
英교수 나폴레옹 死因밝혀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섬에 유배되어 죽은지1백62년이 지난 최근에 그의 정확한 死因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나폴레옹은 당시 머리카락에서 비소가 검출돼 독살됐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으며 그후 나폴레옹 연구가나 사학자들은 이문제를 놓고 논쟁을 해왔다。

최근 영국 뉴캐슬대학의 사학교수 데이비드·존즈박사는 나폴레옹의 사인에관한연구에서 그는 정치적음모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 아니고 유배돼 있던 집 화실의 벽지에 섞여있던 비소때문에 병을 얻어 사망했다고 밝혔다。

존즈박사는 나폴레옹이 워털루의 패전으로 1815년6월 유배되어 1821년 죽을때까지 6년동안을 살았던 세인트헬레나섬의 롱우드 하우스에 가서 화실의 벽지를 조사한결과 곳곳에 비소가 섞여있는것을 발견했는데 18세기말에서 19세기에는 보통 페인트나 염색물에 비소를많이 함유해 사용했다。

비소는 페인트에섞여 마른채로 있으면 아무런해가 안되지만 페인트를 바른벽지에 습기가차고 곰팡이가 끼면 유독성가스를 공기중에 내뿜게 되고 이를 마신 사람은 해를입게된다고 존즈교수는 설명한다。【倫】

표주박

귀순67일만에 少領 임관 李雄平씨
"흥분과 감격으로 體重 5㎏줄었다"

○…3일 공군소령에 임관된 이웅평용사는 『자유대한에서의67일을 좋은 흥분과 감격속에서 지난탓에 체중이 5㎏쯤이 줄었다』면서 『이제 공군의 일원으로 안정이 됐으니까 살이 쩌게 아니냐』고 조크。

이웅평소령은 『국민의 뜨거운 환영을 받고 고귀한 자유를 맛보는 순간 나는 자유를 지키는 군인이 되는것이 피할수없는 의무임을 느꼈다』고 임관후 첫 소감을 밝혔다。

임관식직후 그는 공군본부 찻집에서 金相台총장및 참모장성들과 휴식을 가진 자리에서 『어떤타이프의여자를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TV드라마 「보통사람들」에서의 맏며느리 같은 건강한 여자를 원한다』며 『그러나 허리는 호리호리했으면 좋겠다』고말해 주위를 웃겼다。

그는 이어 그동안 각계 각층으로부터 셀수도 없을 만큼 많은 격려편지를 받았으며 이진실된 편지들이 자신의 새삶에 용기를주는 힘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두고두고 답장을 쓸것을다

땅끝에서 오다 <49>

金成一 作
宋龍 畵

어둠속의 證人 ⑤

그들은 문영실의 침실을 물러 나왔다。 어지럽게 시트가 헝클어져 있는 영실의 베드。 그러나 야릇한 질투나 부러움에 앞서 왜그런지 서글픈 생각이 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너무나 우아하고 깨끗하여서 감히 결혼하자고 말하기 조차 어려웠던 여자。 심지어는 문영실에 대하여 그여자는 밥도 안먹고 변소도안가고 오직 꽃향기속에서 거하는 높다란 주소의 천사로만 생각해왔던 준호가 아니었던가。

『혹시…그때 수화기속에서 들려왔던 음악이 어떤 곡이었는지 생각 안납니까?』

고참의 형사가 아파트의 계단을 내려오면서 다시 묻고 있었다。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왜 시끄러운것 같았고…제 무의식속에 남아 있었던것을 보면…비교적 귀에 익은 곡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크리스머스 캐럴같은것은 아니었읍니까?』

『아니었읍니다。 저는 본래 교회에 다녀본적은 없지만 학생 시절에 대개 크리스머스가 되면 여학생들과 올 나이트 파티를 하기도하고 크리스머스 캐럴을 부르며 놀기도 했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캐럴은 대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그날밤 수화기에서 들려온 음악은 부명히 캐럴이 아니었읍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준호는 비로소 자신들이 보냈던 학생때의 크리스머스가 얼마나 오해된것이었나를 실감하고 있었다。 2천년전 중동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그 아기는 바이블에 의하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그의 모친 마리아라는 여인은 그 아들을 서른 세살의 한창나이로 죽음 앞에 내어주어야 하는,여인중에 가장 가슴 아픈 여인으로 지명되었던 것이다。 그 아기가 태어난 밤,그것도 아늑한 방이 아니요 마굿간에서 태어난 밤에 준호의 패들은 밤새도록 소주를 마시고,여학생들과 음탕한 이야기를 나누고,게임을 하고 젓가락 장단에 맞추어 캐럴을 악을 쓰듯 퍼부어대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며칠전의 크리스머스만 해도 그랬다。 준호 자신은 신바시(新橋) 골 바에서 스미에와 메리 크리스머스를 지절거리며 축배를 들었다。 그리고 아파트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를 벗겨놓고 그 살냄새 속에 몸을 묻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에 문영실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취해 있었고,또 남편이 아닌 다른 사내에게 전화를 걸었었다。 그 시간에 이름 모를 한 사람이 그녀의 아파트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새 한 아기가 태어나고 있었다。 버림받기 위하여,처형당하기 위하여 어느 낯선 마굿간에 태어나고 있었던것이다。

어쨌든 이제 준호로서는 문 영실이 결코 범인이 아니란 심증을 굳혀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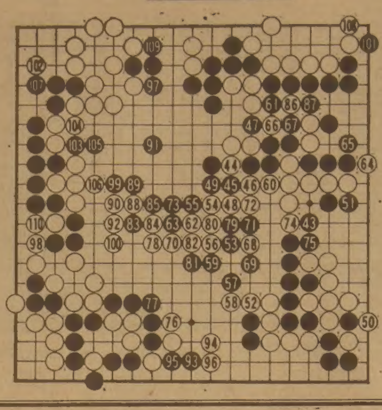
(영실은 범인이 아니다。 그녀는 석방될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알리바이가 필요했다。 피살자가 살해당한 그 시간에 문 영실이 그 아파트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증인이 필요했다。 그 증인이 되어줄 사람은 바로 영실에게 전화를 걸으라고 명령했던 거친 목소리의 사내,어둠속에 있는 미지의 사내일수 밖에 없었다。

第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5局 第8譜 143～210 (각5시간·덤5집반)

白 (6段) 張 秀 英〈3勝0敗〉
黑 (6段) 徐 能 旭〈2勝2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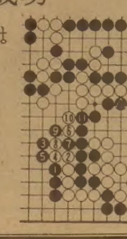


결과부터 밝히면 이바둑은 白이 중앙대마를 92까지로 탈출한데서 승부는 완전히 결정、白이 10집반을 용하게 승리했다。

결정타를 놓치고서 당한 핀치였으나 張6단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요모조모로 강약을 섞어가며 적의 추격을 뿌리쳤던 것이다。

黑43이하의과정에서 白48은 절대선수。그리고 재빨리 白50으로 따냄으로써 우하귀 黑을 잡아버린것은 굉장한 수확이거니와 이근처는 張6단이 원숙한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한 대목이라 하겠다。

白大馬 脫出成功



黑은 51이하로 우변 白대마를 공격한다。51은 겸하여 참고도의 수단도 보고있다。즉▲표다음 선수를 잡으면 黑1이하 11까지를 결정지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白52는 절대。黑은 계속하여 53이하로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으나 張6단은 나머지 1분의 초읽기에 쫓겨 白66,86등 시간연장책을 쓰면서도 92까지 보기좋게 연결해갔다。白110이후는 총보로 미룬다。【一凡】

張吉山 <1732>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92)

삭녕에는 일찌기 시동이 만일이와 함께 한양 가서 상번병이 되었던 이시흥이 주막 주인을 하고 있었으니 그가 속으로는 검계원이었고 미륵도의 삭녕 상좌가 되었다。 그의집에 기도하러 참석하였던 인물은 주대천(朱大天)송계망(宋繼望)조한욱(曺漢旭) 그리고 시흥의 삼촌 이유선(李有先)조무인(曺武仁) 허춘(許椿)백성원(白成元)김천선(金天先)임기음(林己揖)등이었다。 다시 영평에는 황회와 정원태가 거주하였고 정만일과 정대성이 살았으니 그들은 만일의 안에 따라 부농인 이철신(李哲信)을 상좌로 삼을 수가 있었다。 따라서 철신의 사랑 손님이던 형방(刑房) 전시우(田時雨) 예방(禮房) 허시만(許時萬)도훈도(都訓導) 정영(鄭永)과 철신의 소작인들인 민호길(閔好吉) 이득견(李得堅)이득내(李得乃)등이 도에들었다。

그중에서 봉수꾼인 이응화(李應化)와 정영,민호길,이득견 이득내 형제는 검계원이 되었다。 그리고 위의사람들밖에도 일반신도들은 두텁게 그거죽을싸고 있었으니 임진강을 상하좌우로하여 교세는 재빨리 번져 나갔다。

해를넘겨 그들이 되뇌이던 무진(戊辰) 여름이 되었다。 오계손으로부터 소식이 왔으니 해서풍류계는 이미 거병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이었고,전설달에의하면 강원도에서도 승병의 집결이며 거병준비가 끝났다는것이었다。여환은 한시 바삐원향이와함께 있고 싶었다。

시기가 무르익었으니 원향이 한양인근에있는 일은 매우 중요한것이 되었다。 즉 원향은 해서에서 가장 큰만신이며 구월산 당군대의 정기를받은이라,해서의 군병이 쳐들어올제 그들을 근거 일대의 군병과 합대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해서와 장길산의 부대는 원향을 표적 삼아 내응과 외응을 할 수가 있는것이었다。 바람과 조화의 진년(辰年)용의 해라,원향은 그에 알맞게 용녀(龍女)의 별호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임무가 곧 병의 집결에 있었던 것이다。 미륵도의 회의처였던 칠성암에서 여환 계화와 황회 전설달은 원향을 데려오는 일을 놓고 의논하였다。 그것은 곧 여환과 원향의 혼례로 방편을 정하였으나,여환으로서는 이미 원향과 아무도 몰래 사선골 그 여자의 신당에서 부부의 가약을 맺었던터였다。 황회 전설달이 전도(前導)를 자처하였고 계화는 매파로서 새색시의 수종을 들기로 농하였으며 영평의 노비 말립이가 마교(馬轎)의 견마를 책임지기로 하였다。

그들은 유월 초에 양주도/를 출발하였다。사선골에 당도하니 그래도 지난겨울처럼 도깨비가 나올듯이 을씨년스럽지는 않았다。 높은 나무 위에서는 매미가 한창 울어대고 숲은 무성하였으며 계곡의 물은 시원스레 흘러 내렸다。 원향의 처소에 이르니 원향은 마침 신당 안에서 기도 중이다가 반색을 하여 달려 나왔다。

『이모, 여기까지 웬 행보예요?』

『용녀부인 수종 들러 왔지요』

계화는 전과 달리 공손히 말하였고, 원향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아이 왜 이러셔요?』

전설달과 황회는 지난 겨울 이래로 원향과는 구면인 셈이었다。

Ontario
Hon. William Davis, Q.C. Premier
Hon. Robert Welch, Q.C. Minister of Energy
Hon. James Snow Minister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Energy Ontario

사람들로 포화상태

승용차도 . 추럭도. 공중수송.
오늘 그들이 저장하는 에너지는 내일
우리가 모두 사용할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소식은 에너지성으로부터 얻습니다.』
62 Wellesley St. West, Toronto, Ontario, M7A 2B7.

여성교양생활지
주간 女性
판매처・각한국식품점
구독신청・한국일보사
533-2361

BLOOR—SHAW
SHELL SERVICE
□일반 자동차수리 JOB □토잉
모든 자동차 일반 CHECK
—UP을 컴퓨터—씨스템(SCOPE)
로 즉시 알려드립니다.
한인교포에게는 10% 할인
아리랑하우스옆 주유소
726 BLOOR ST. W
(크리스티×블루어 코너)
☎531-7818, 531-2218 마리오

⊙개인당 $32.95부터
(세금및 팁 포함)
—50명 이상을 위주로 —
Fruit Punch, full dinner, 포도주
2잔, 술, 뱅쿠엘 룸, 하루밤 숙박 등등.
Holiday Inn
1250 Eglinton Avenue East, Don Mills
(416) 449-4111　Catering 매니저 (Alison MacKinnon)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Grant Brown
GM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247-7161

PARKING 장이 편리한 "남강" 에서 만납시다

Restaurant & Tavern

南江

920 YONGE ST.
(north of Bloor)

◇한 식
◇일본식
◇스시바 오픈

◈각종연회 · 동창회 ·
결혼피로연 · 각종 모임 ·
단체손님 대환영

※일요일도 영업합니다. 낮12 : 00~밤12 : 00

☎ : 923－3060 대표 · 이영규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 전화 ……………………

크레딧 · 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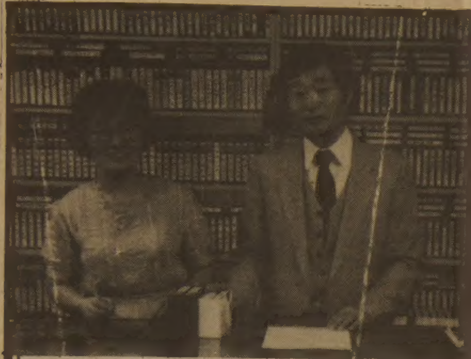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Save 30%

◉품질 보장。
◉각종 부엌칼 종류 및 가위。
◉견고한 독일제 유명메이커。

〈빅 · 세븐 선물센타〉

660 Bloor St. W.
TORONTO, ONTARIO
☎ : 533－7966. 533－8110
대표 김영철



현재 2,500개 테잎 보유

• 새로다시 연속극이 입하 되었읍니다.
• 외국테잎 다수보유!

한국비데오센터

678 BLOOR ST. W.
☎ : 532－0210 손병헌

세방여행사 업무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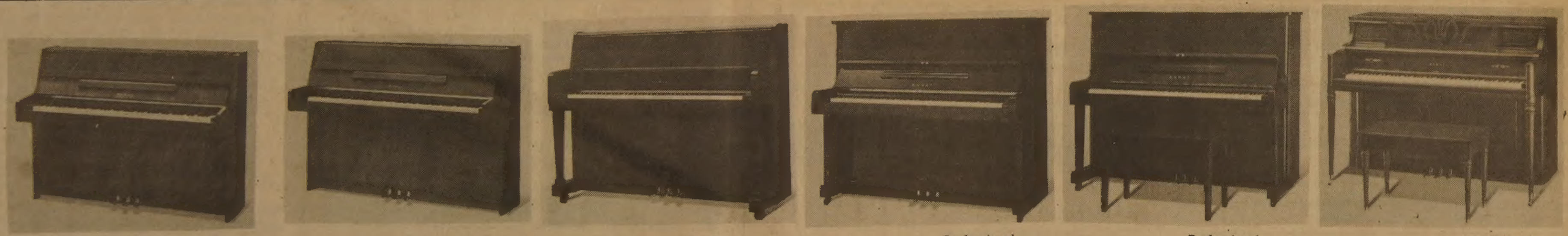
IATA

◎한국 · 미국 · 캐나다 · 유럽등 항공권판매
◎스키, 플로리다, 유럽등 관광패케지
◎방문초청, 수속, 번역등 서류작성
◎캐나다, 미국 각종대학 유학상담
◎호텔, 렌트카예약및 기차표판매

Sebang Travel Service Ltd.
720 Spadina Ave. Suite 104
Toronto, ONT. M5S 2T9
유승빈
(416)928－3335
(R) 532－9581
△몬트리올(정관성)514－672－8399
△위니펙(이영호)204－783－0007

리틀 · 월드

개업5주년 기념 할인 대매출



Continental Console CE-7N | Continental Console CX-4 | Studio UST-7 | Professional KS-3F | Professional KL-502 | Traditional 803-T

◈각종 가와이 피아노 $2,500부터
◈전자올겐 $1,600부터
◈BONTEMPI올겐 $695부터
◈야마하 PORTABLE(소형)올겐 $175부터

☆은행융자를 이용한 6개월~2년간의 저 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합니다.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호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영원히 기억에 남을 관광은 "코라메"뿐입니다!

매년 1,2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감동시키는 나이아가라 폭포, 신의 실수로 만들어졌다는 1,000 ISLANDS(천섬), 30,000 ISLANDS((3만섬) 등 ONTARIO및 TORONTO의 볼만한 곳을 찾아 전문적인 지식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읍니다.

● 일일관광 안내 (3인이상 출발)

○나이아가라 폭포(매주 월 · 수 · 금요일) : $35
○1,000 ISLANDS(매주 화요일) : $45
○30,000 ISLANDS(매주 목요일) : $45

*30,000 ISLAND는 6월부터 시작합니다.
*출발시간은 아침 9 : 30.
관광비용에는 왕복교통, 친절한 관광안내, 유람선 승선비, ROCK TUNNEL 입장료(나이아가라 폭포)등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개인및 단체관광, 기타 관광지(휴양지, 모텔)에 관한 문의를 환영합니다.

〈관광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예약을 해주십시오.

〈취급업무〉
● 기타 관광명소 안내
(여객유람선관광및 대륙횡단 철도관광등)
● 공항 픽업 업무(환송및 마중)
● MESSENGER SERVICE(신속정확한 DELIVERY)

코라메관광 (KOR-AME)

649A BLOOR ST. W. TOR. ONT. 함영호
(제일여행사 옆사무실) (416)535－0853 (R)265－4842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톨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컴퓨터 식자 서비스
컴퓨터 식자기를 이용하여
책을 만드실 분 문의 바랍니다. ☎ :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 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금천루). 영업시간 오전8:00~새벽1시.
양식, 중국식(사천요리). 단체손님환영.
예약전화 : 491—4058. 3030 DonMills Rd.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웨이트레스 급구함.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안 경 점

블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볼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회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배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개스탱크 ▲워터펌프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카텐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로.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하르빈한약상사
전 중국한의대교수. 전 중국의대졸업.
하르빈한의대졸업. 한의학과 침구연구 20년.
한약으로 암치료연구 20년. (중국어, 일어, 한국어 능통).
각종한약 중국에서 직수입 도산매전문. 20년간 임상경험을 토대로 한약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저 하옵니다.
643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춘봉.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경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아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 전화 : 922-8350

구 인

주말헬퍼구함.
경험자우대, 몬트리얼지역.
"희의 집" 전화 : 1-(514)-861-6128.

도넛숍에서 밤일 풀타임, 파타임
일하실 여자분 구함.
398 Church St.(at Carlton) 전화 : 977-0303

영어가르쳐 주실분 구함.
전화 : 535-6517, Mr, 권.

급히 가게매니저 구함
월수입 $4,000이상 보장
전화 : 1-560-6400 해밀톤

웨이트레스 급구.
유경험자 우대함.
전화 : 757-6334

입주, 또는 출퇴근하면서 아기보아 주실분 구함.
전화 : B)839-8438, R)282-6223.

〈무역담당 직원구함〉
자격 : (1)대학졸업자 (2)무역경험자 (3)영어능통자 (4)남자 또는 여자분
Start 년봉 : $25,000
전화 : 677-4749(제니) Jenny

헬퍼구함, 청소하실 분.
Weston 지역.
전화 : 743-2373(오후5~8시사이 연락요망)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매주말에 지불함.
전화 : 534-5903 Mr, Peter

입주하셔서 17개월 된 남자아기와
약간의 가정일 돌보아 주실분.
전화 : 270-1981.

경험있는 캐쉬어 여학생 구함.
파트타임(오후5시~10시), 단 토·일요일은 풀타임.
전화 : 621-4121 Mrs, 정.

입주하셔서 남자아이 둘(5살, 9살) 돌봐주실 아주머니 구합니다. 미시사가 지역.
전화 : 276-6911 (오후5시이후 연락요망)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
영어에 능통한 자.
전화 : 221-9051.

파트타임 헬퍼 구함.
Partime helper wanted at Country Style Donut Shop.
Located at Keel and Just South of Finch.
Common english communication needed.
Anyone who is interested please
Call 630-9413 ask for Mr, Yun

재봉사구함.
여자옷종류 재봉할 수 있는 분.
전화 : 366-3227.

도너츠숍에서 일하실 주말헬퍼 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2-0634.

과일 채소가게에서 일하실 결혼하신 남자분.
직접면담요망.
주소 : 383 Roncesvalles Ave, Elliot's Food Market.

가발 염색및 가발 만드실분 구함.
경험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하나 꼭 필요치는 않음.
풀타임 또는 파타임으로 다운타운 지역임.
Training을 받기 위해서는 꼭 영어를
말할 수 있어야하고 이해하여야만 함.
문의 : 977-1122 Randy

재봉사 구함.
숙녀복및 양복 수선 할 수 있고,
꼭 경험이 있어야함.
피스 워크
좋은 베니피트 보장
★희망자는 IRVIN POSLUNS을 면담.
DYLEX, 3RD, FLOOR
637 LAKESHORE BLVD, WEST.
전화 : 591-7054

매 매

FRUIT MARKET 급매.
연수입 $2만보장. (켄싱톤 MARKET & SPADINA)
Asking $4만. 전화:977-6347, 591-9378 Mr, Lai.

Show Case 4ft & 6ft(기타 여러종류)
Magazine Rack 급매.
전화 : 757-8323, 759-6445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5,000.
렌트 : $700, 리스: 6년+10년 옵션
전화 : 1-388-4825(해밀톤)

Becker's 후렌차이스 Store 매매.
스카보로지역.
전화 :439-3044, Mr, 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3,000, 시작한지 10주.
낮은 Rent, 리스좋음. Asking $27,000.
타사업관계로 매매코저함. 전화 : 466-9864(AM10시-11시)

▲야채및 과일가게
주매상 $6,000이상, 리스 5+5+5년.
계속 발전되고 있는 동네안의 깨끗한 Plaza내에 위치.
가정형편상 급매코저함. 유경험자나 대가족을 가지신 분은 꼭 한번 보십시요. 아스킹 $59,900
▲Fast Food
Bloor & Yonge의 바른 Shopping Center안에 있음. 주매상 $4,500, 리스 3+5년. 짧은 시간, 같은 주인이 7년간 운영. 본국으로 돌아감. 아스킹 $129,000
채준성(David Chae)(B)497-8900 New line Center
Sincere Realty Inc.

Dry Cleaners(Depot)매매.
주매상$850, Rent$350, Asking$23,000.
전화 : 531-5664.

Tuck-Shop Variety Store 급매
꼭 관심있는 분만 내방을 바람.
면담시간 : 9am~11am
영업시간 : 8:30~9까지 하고 있음.
장소 : Dundas + Parliament 근방
39 Belshaw Place Tor.

장비매매, 새커피머신(그라인더) $600, 새초코렛머신 $400,
새 Meat Slider $1,300, 새써브마린테이블 $2,000,
커피테이블및 의자등등. 전화 : 465-6885(Mr.김)

Town Houese 매매(좋은 가격) 매매.
Jane & Sheppard지역
전화 : 743-3377 Mr, Eastman

가게 달린 주택 매매.
좋은 위치, 좋은 전망.
전화 : 653-1958 Mr, Viss 영어로 문의바람.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전화 : 487-0108

오타와 중심가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타사업 관계로 급매. 주매상 : $7,000
렌트 : $650 전화 : 1-613-238-3837

가게 사실분 또는 매니저 구함.
해밀톤 지역서 성업중.
전화 : 1-560-6400 Mr, 정

도우넛 숍 장비매매.
Half Price Sale.
전화 : 884-5573, Mr, 강.

집과 가게건물 두채를 매매, 혹은 리스코저 함.
매매 19만불, 7만 Down.
전화 : 291-6625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5,000.
렌트 : $700, 리스: 6년+10년 옵션
전화 : 1-388-4825(해밀톤)

Daily Case와 Cooler & 야채다이 팝니다.
전화 : 844-2922

Convenience Store 매매. 주매상 $5,500, 로타리오 머쉰,
직접 내방 요망. 5년 리스 + 5년 옵션. 비데오 있음.
1801 Lawrence Ave, E, Scarboro.

PICK-UP 세탁소 매매. Asking: $6,000
Apt, Rent 포함 $400, 리스 8년
전화 : 534-5904 Mr, Peter

도나스 숍 매매. 주 $5,500
Bathurst & 580 Queen St, W.
전화 : 368-2100

새로운 각종 비데오게임 매매.
이익은 50%씩 나눔. 좋은 Terms.
전화 : 247-3713

블로아에 위치한 스토아 매매. 비데오게임 라이센스.
Post Office 로타리오 머쉰 연수입 7만2천이상
Asking Price : 9만5천+Stock 전화 : 588-1494

이전관계로 좋은 조건으로 급매.
3 Bed Room, 콘도미니움 타운하우스.
전화 : 493-0615 Mrs, 안(6시반이후)

도너스가게 매매.
주매상 $3,600, 아스킹 $145,000(St, Clair & Midland)
전화 : 421-6964, John or Peter.

〈급매〉 서쪽 끝에 잘 관리된 현대감각의 천과 커텐가게, 필요에 따라 배울때까지 보조함.
Mr, or Mrs, Shine 전화 : 225-6999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6,500 + 로타리오 머쉰있음.
전화 : 977-0578, Mr, William(K.SEE REALTY INC)

집과 가게딸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4 Bed Room, Eglington & Jane, Asking 13만9천불.
전화 : 767-5080 Mr.리

햄버거 레스트랑 매매.
성업중, 리스 좋음, Downtown(시내중심가)
전화 : 461-2404 MR, ANGELO

Oshawa Downtown Shopping Mall안에 있음. Shoe repair Shop, 4월1일부터 Open했음. 매매.
관심있으신분은 291-8367로 전화연락바람(아침10시 부터 오후3시)

오픈한지 5개월 된 도너츠숍 급매.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3-1733.

구 혼 상 담

남·녀 연령불문 한국내에 결혼환영
(시간 AM9~12, PM7~10)전화 : 751-3628 Mr.최
10 SUNRISE AVE, #411 TOR.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redacted]

아파트써부릿렌트, 온타리오싸이언스부근, 현재 월$605,
3 Bed Room(8월이후$650), 5월15일부터 입주가능.
전화 :424-1993, 낮 536-2155.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DANCE STUDIO
로맨틱 탱고, 룸바, 차차, 스윙등…
2 for 1 봄철특별할인. 전화 : 781-0691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 ◉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손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248-2437(R)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농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피아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88-2444(B) 491-5962(R)

사무용구및 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비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비·세븐 선물쎈타 660 Bloo.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한 ... 데이트석실 있음.
693 BL... 535·9541 Mr. 김

안보시면 평생 후회합니다.

폭발적인 추세로 매진박두!

"표는 빨리 구입하십시요."

☞A 석은 매 진
☞B 석은 판매중
☞C 석도 판매중

—김희갑, 서영춘, 구봉서, 배삼룡을 거쳐 현재 한국에서 수년간 최고 코메디안의 정상을 고수하고 있는 "이 주 일"
—1982년도 드디어 정상가수 조용필을 물리치고 MBC가요대상을 차지한 "이 용"
—수많은 카셀으로 우리에게 친근한 메들리의 여왕 "김 연 자"
—독특한 몸짓과 여자가수로선 최고의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이 은 하"

한인민족상 기금모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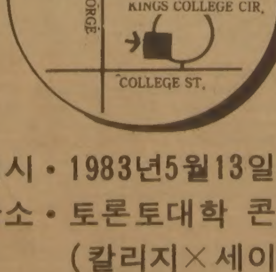
모국연예인 초청 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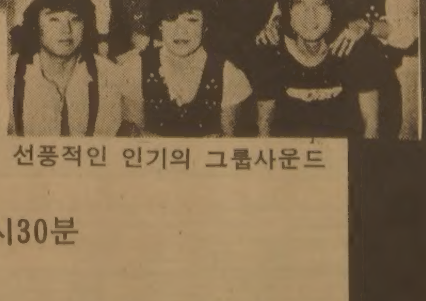
한국 최고의 코메디안
"무언가를 보여 주겠읍니다."
"못 생겨서 미안합니다" 이주일

그래머 가수
"네가 좋아"
이은하

이 용

"진정인가요?"
'메들리의 여왕
김연자





호랑나비

선풍적인 인기의 그룹사운드

일시 • 1983년5월13일(금) 오후7시30분
장소 • 토론토대학 콘보케이션홀
(칼리지×세이트 • 죠지) Kings College Circle
입장권예매처(A석 $15, B석 $12, C석 $10)
한국각식품점, 한국관, 동궁, 아리랑하우스, 남강

주최: 토론토한국일보사
한인민족상위원회